

한국평협

통권 36호 · 1999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한국평협

통권 36호 · 1999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

인사말	류덕희 전국평협 회장	4
신년취호	해강 강주희(한국평협 사무총장)	6
'99년 세계 평화의 날 메시지 교황 요한바오로 2세		7
'99년 성부의 해 각 교구장 사목교서		10
서울대교구 / 10	대전교구 / 11	
인천교구 / 12	수원교구 / 13	
원주교구 / 14	대구교구 / 15	
부산교구 / 16	청주교구 / 17	
마산교구 / 18	인동교구 / 19	
광주교구 / 20	전주교구 / 21	
제주교구 / 22	군중교구 / 23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1998년 추계 정기총회 결과		26
'99년 한국평협 사업계획서 / 강주희 한국평협 사무총장		37
제31회 평신도주일 강론자료		45
교구 평협회장 새해인사		49
교구 및 단체소식		60
제14회 가톨릭대상 시상식 이모저모		70
도·농 협력 -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		74
류덕희 회장 북한방문기 하느님의 오묘한 창조진리 깨달아		81
평협논단 2000년 대회년과 성부의 해 / 이창훈		83
평협 30주년 기념 「평협발전방향 모색 세미나」 / 박문수		86
「평협 30년사」 편찬을 위한 준비		100
한국평협의 「경제살리기」 위한 우리들의 다짐		103
단체장, 교구평협 회장, 한국평협 임원명단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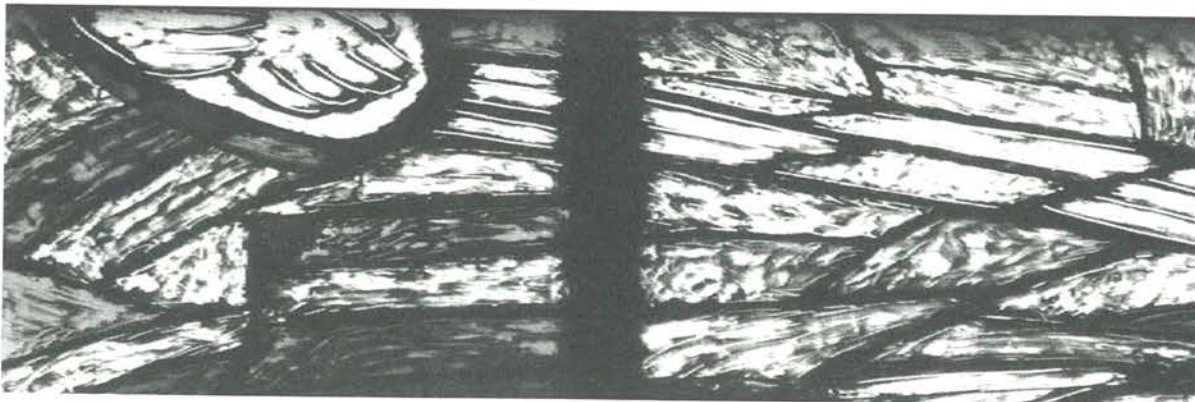
‘사랑의 마음으로’

교형 자매 여러분!

경제위기로 암울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다소나마 희망적인 분위기 속에 새해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IMF관리 체제를 벗어나고 하느님의 보살핌 가운데 모든 이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의 해’인 1999년은 해방과 용서, 은총의 2000년 대회년을 준비하는 마지막 해입니다. 전국 평신도사도직협의회에서는 그 동안 2000년 대회년을 준비하면서 지난 평신도 주일 강론자료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위치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본분을 찾기 위해 애써 왔던 노력들을 한층 성숙시켜 ‘성부의 해’인 올해는 하느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자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전국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우리 평신도 모두가 하느님의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지혜를 가지며, 하느님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하느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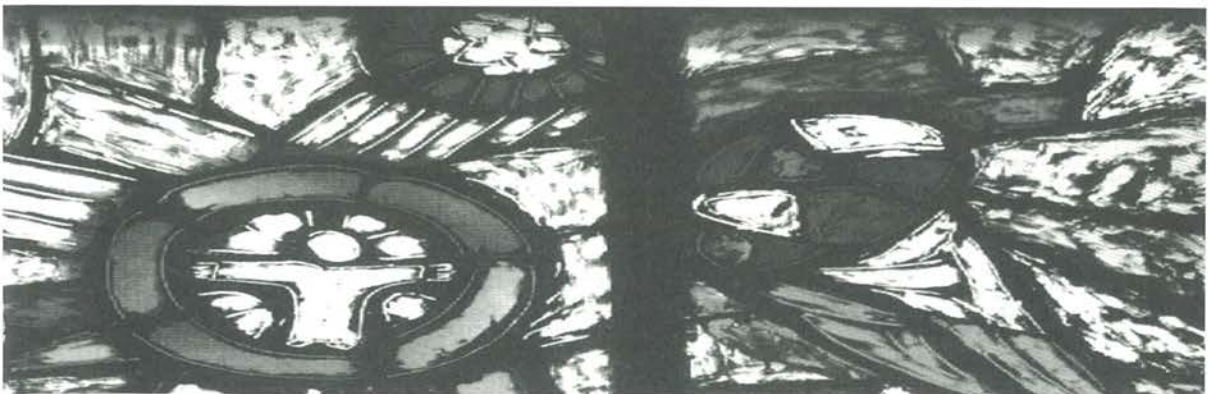


류덕희 모세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내용들을 봉헌하는 '대회년 맞이 평신도대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평신도 교육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경제살리기운동, 선교활동 강화와 평협 조직의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평신도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가족과 이웃, 동료, 친구들을 위해 못다한 일은 없었는지 해마다 되풀이하는 일이지만, 금년에도 지난 삶을 반성하고 진정한 회개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변화된 나로부터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복음이 참됨을 세상에 증언하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성장해야겠습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대회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일입니다. 그 동안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느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 2000년 대회년을 뜻깊게 맞이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難忍能忍賢者行
可語不語君子心

乙卯元旦海堂素園書

難忍能忍賢者行
可語不語君子心

(직역)

참기 어려운 것을 잘 참는 것은 현자의 행실이요,
말하기 쉬운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군자의 마음이다.

(해설)

인내심없는 현대 사회에서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는 이가 되어야하고, 남의 말(상대방의 말) 곧잘하는 흑백논리 속에서도 말을 아끼고 신중을 기함은 이 시대에 절실한 과제가 아닐까.

..... '99년 세계 평화의 날 메시지

인권 존중은 참 평화의 비결이다



교황 요한바오로 2세

1. 첫 회칙 [인간의 구원자](Redemptor Hominis)에서, 저는 인권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인간 존엄의 증진을 지도 원리로 삼고 공동선의 추구를 최우선 과업으로 삼을 때에 평화 구축을 위한 확고하고 지속적인 토대가 놓입니다.

2. 인간의 존엄은 초월적 가치입니다. 우리 시대의 역사는 인간에 대한 진리의 망각에서 오는 위협을 비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나치즘, 파시즘과 같은 이념의 결과를, 그리고 인종 우월주의, 국수주의, 민족 배타주의와 같은 허황된 통념의 결과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인간 존엄에 대한 모독은 결코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3. 인권은 인간과 인간 존엄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인권은 전통적으로 두 범주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입니다. 모든 범주의 인권을 온전히 증진하는 것은 참으로 개별 인권에 대한 철저한 존중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이고 단일한 인권의 수호는 평화로운 사회 건설과 개인, 민족, 국가의 총체적인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4. 그러한 첫째 권리가 생명권입니다. 인간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신성 불가침한 것입니다. 이는 긍정적인 선택 곧 생명을 위한 선택을 내포합니다. 유전 공학 연구가 인간에게 봉사하려면, 윤리적 성찰과 적절한 법률적 규범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온갖 형태의 폭력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곧 수많은 인간을 괴롭히는 빈곤과 기아의 폭력, 무력 충돌의 폭력, 범죄적인 마약과 무기 거래와 같은 폭력들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5. 종교 자유는 인권의 핵심입니다. 종교 자유는 불가침 권리이므로, 개인이 양심의 요구에 따라 종교를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여야 합니다.

오늘날 종교 집회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거나 어느 한종

교의 신자들에게만 허용하는 곳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종교적 신념이라는 미명 아래 폭력에 의존하는 것은 주요 종교들의 가르침 자체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6. 모든 시민은 공동체 생활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패나 특혜 등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이러한 행위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게 될 때 건설한 민주 제도의 발전은 실제로 불가능해집니다.

국제 공동체 안에서, 국가와 국제 사회의 공동선을 추구하려면 경제 분야에서도 모든 사람이 그들과 관련된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7. 가장 비극적인 차별은 인종 집단과 소수 민족들에게 생존할 수 있는 근본 권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그러한 범죄를 종식시키려는 모든 노력은 결코 지나친 것일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긍정적인 신호는 국제형사재판소입니다. 이 새 기구가 건설한 법률적 토대 위에 세워진다면 세계 차원에서 실질적인 인권 보호에 점차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8. 모든 인간에게는 발전할 수 있는 타고난 잠재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그들 앞날의 성공은 교육에 달려있습니다.

세계는 한편에는 고도의 기술을 갖춘 국가와 개인들 다른 한편에는 극히 제한된 지식과 능력을 가진 국가와 민족들로 나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품위 있는 생활 수준에 이르는 조건인 또 하나의 기본권은 노동권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실직한 현실에서 비상 조치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9. 경제 금융 제도의 세계화는 공동선과 경제적 사회적 권리 행사를 보장할 책임 주체를 설정하여야 할 필요성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자유 시장은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최근의 경제 금융 위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극도의 빈곤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세계 금융 관계 책임자들과 부유한 국가들에게 극빈국들의 심각한 외채 문제 해결을 위하여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부탁 드립니다.

10. 인간 존엄의 증진은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와 이어집니다. 환경 규범들은 이 권리에 점차적으로 법률적 형태를 부여하고 있으나 법률상의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대 문명의 소비주의 생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세계의 현재와 미래는 창조의 보전에 달려 있습니다.

11. 평화에 대한 권리 증진은 다른 모든 권리에 대한 존중을 보장합니다. 정치적 사회적 문제들의 해결을 폭력에 의존하는 것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일부 지역에서 평화 확립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여전히 자행되는 대량학살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 전쟁에서 살아남은 어린이들은 평생 동안 그런 끔찍한 체험의 상처를 지니고 살아갈 것입니다. 어린이들에게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각국 정부는 살상 무기들의 제조와 판매, 수입과 수출을 규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2. 우리가 이 모든 인간 권리를 보호하는 데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인권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하나의 인간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용인된다면, 다른 모든 권리도 위협해집니다. 그러므로 인권 문제에 대한 범세계적인 접근과 인권 수호를 위한 진정한 투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심을 움직이는 인권 문화의 증진은 사회 모든 분야가 함께 협력해 나가도록 촉구합니다. 외와 관련해 대중 매체의 역할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13. 새로운 천년기가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많은 이들의 마음은 더욱더 정의롭고 우호적인 세계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열망은 실현될 수 있고 또 실현되어야만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인간 존엄의 선포자가 되십시오! 우리는 가장 가난한 이들과 가장 소외된 이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희년을 위한 마지막 셋째 해 준비는 아버지의 집을 향한 영적 여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이가 진정한 회개의 길을 걷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2000년의 문턱에서 우리는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의 존엄을 수호하고, 아무 권리도 없는 이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노력을 새롭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임박한 희년의 정신입니다.

사랑을 나누라는 초대장을 받아들입니다! 그 사랑 안에 모든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새로운 천년기의 여명에서 다 함께 평화를 이룩하도록 합시다.



주님선포, 찻짜가는 봉사,
선교위한 특별기도 당부,
어려운 이들 위한 관심 중요



정진석 대주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근본적인 사명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여 당신 구원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기쁜 소식은, 모든 사람들이 알 권리가 있고 알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주님을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내 이웃과 사회에 제공하는 첫째가는 봉사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 끝까지 전파하였듯이, 우리도 주님의 기쁜 소식을 곳곳에 전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부터 모든 공동체(반모임, 구역 모임)에서는 선교를 위한 특별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와 함께 서울교구 신자 모두는 한 사람씩 주님을 모르는 사람을 주님께 봉헌하며 선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잃은 양들에 대해서도 모든 공동체가 특별한 기도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대회년 준비의 마지막 해인 1999년도의 목표는 신앙인들이 시야를 넓혀 그리스도의 눈길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마태 5, 45 참조)의 전망 안에서 사물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회년 준비 셋째해를 맞이하여 중요한 관점은 "가난하고 버림받은 이들을 위한 교회의 우선적 선택"(제삼천년기 51항)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소위 IMF 경제위기로 인해 실직한 사람들과 거리의 노숙자들과 외국인 노동자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관심과 배려와 사랑을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취임 후 첫번째 사목교서의 주된 관심은 복음선포에 대한 열의입니다. 성자께서 이 세상에 파견되어 오신 근본적인 사명이 복음선포이며, 사도들의 첫번째 사명도 복음선포였습니다. 사도들의 후계자인 교구장으로 선임된 저는 우리나라에도 더욱 복음화가 되는 은총을 주시기를 하느님께 간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전세계 인구 중에 평균 약 18%이니까 한국 교회도 최소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갑룡 주교

2천년 대회년 교서 '제삼천년기'의 권고에 따라 1999년도 교구 사목지표를 '하느님 아버지와 선교'로 정합니다. 그리고 교구 40주년의 기원인 '새로나게 하소서'를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내도록 합니다.

모든 사목자들은 신자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전기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모든 사목적 배려를 다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자 교리에서부터 주일을 거룩히 지내는 습관을 철저히 교육시켜야 합니다. 또 신자들이 미사를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도록 하기 위해 전례와 강론 준비에 세심한 배려를 하고 미사를 통해 공동체가 더욱 밝고 우애 넘치는 분위기가 되도록 공동체 모두가 노력하도록 합니다.

2. 새날 새삶 운동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펴 나가도록 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대회년이 지향하는 교회쇄신은 또 한번의 요란한 구호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우선 2000년 대회년 주교 특별위원회에서 편찬한 '새날 새삶' 책자를 널리 보급하고 모든 교구민들이 숙독하도록 권장하며 네가지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새로나게 하소서 지속추진,
주님의 날 거룩하게 지내자
신자수의 0.1% 성소계발

실천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합니다.

3.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더 큰 관심과 사랑을 쏟아야 합니다.

진정한 우정은 어려울 때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때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웃 사랑이 어느때 보다도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의 나눔은 결과적으로 나와 우리 모두를 풍요롭게 만든다는 진리를 모든 교구민들이 깨닫도록 꾸준히 일깨워야 합니다.

4. 선교와 성소계발을 잠시도 멈출 수 없습니다.

6년째 계속하고 있는 선교와 성소계발 운동은 중단없이 지속되어야 하겠습니까. 선교는 우리 교구 신자수가 전국 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중단없이 지속되어야 하겠고 성소계발 역시 교구 신자수의 0.1%의 신학생을 확보할 때까지 기도와 노력을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선교와 성소계발은 본당의 존재 이유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소명임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고 기도와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의 평가가 항상 여러분께 임하길 바랍니다.

사랑과 참회의 길로 나가자,
교구시노드 올 상반기 개최
“대신학교는 교구의 심장”



나 굴리엘모주교

1. 2000년 대회년을 바라보며

올해 성부의 해는 우선적으로 모든 이들의 회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화해성사에 대한 깊은 인식과 참된 의미를 깨달아 주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자주 마련함으로써 자신과 이웃 그리고 하느님과 화해하여 사랑과 참회의 길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 가난하고 버림받은 이들, 굶주림으로 허덕이는 복녘 동포들에 대한 형제적 사랑과 구체적인 나눔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희망합니다.

2. 교구 대의원회의 개최

올해는 교구 및 본당 진단, 의견 청취 모임인 <열린 마당> 등을 통해 교구의 현실과 교구민들의 원의를 바탕으로 '교구 시노드 본회의'를 준비하고 개막하게 될 것입니다. 본회의 개막총회는 올 상반기 중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교구 대의원회의(시노드) 본회의 기간은 그리스도를 향한 교구 공동체의 쇄신을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변화해 가는 미래의 사목 환경 아래서 교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3. 소공동체 활성화와 사랑의 실천

이제는 복음화와 소공동체 활성화가 더 이상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2000년 대회년을 준비하며 삶의 현장인 가정과 지역 교회 안에서부터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우선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한 구체적인 사랑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청소년 사목 계획

올해 청소년 사목은 '양성'과 '개발'을 중심으로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신앙성숙의 주체인 청년들을 위하여 전담 사제와 청년 지도자로 구성된 청년사목부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모든 본당과 각 가정에서도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육성을 위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 인천가톨릭대학교 건립 및 성소자 양성

'교구의 심장'인 인천 대신학교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기도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대신학교 공사는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나 경제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기도와 정성을 밑거름으로 열심한 성직자, 선교 사제들이 많이 양성되어 남북한 민족 복음화와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 투신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최덕기 주교

2000년 대회년 준비 마지막 해인 올해는 '성부 아버지의 해'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첫 단계는, 하느님께서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을 거듭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셨던 것처럼, 탕자와 다를바 없는 우리에게도 당신의 자비를 보여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굳게 믿고 아버지 하느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여 하느님 아버지와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하느님의 은총을 입은 마리 아처럼, 하느님의 자비를 입은 바오로 사도처럼 우리도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에 감격하여 주님을 선포하는 개개인이 되고 교회 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 체험은 기도를 통해, 성서에 있는 하느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생활화함으로써 다져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일마다 주일미사에 열심히 참여하고 주일을 거룩히 지냄으로써 그리고 고해성사를 통해, 복지시설에 가거나 이웃사랑 실천을 통해, 순례를 통해서도 다져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교구민 모두는 회심운동으로 매달 고해성사, 매주 미사 참례, 그리고 매일 성서말씀 생활을 실천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우리는 선조들이 피흘려 준비하셨기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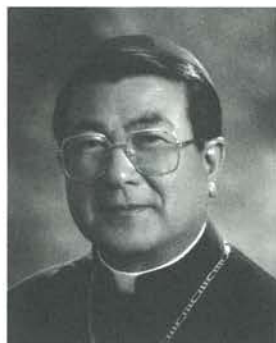
하느님의 자비체험 다지자,
교구민 회심운동 실천 권고
청년들이 교회의 주인돼야

신앙의 후손으로 거저 얻은 이 좋은 기회를 십분 활용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사명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선포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일상적인 일인 본당 분할 작업과 선교활동, 새 복음화와 사회복음화를 꾸준히 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범민족적인 차원으로 볼 때 통일사목이야말로 한국 천주교회가 하느님 자비를 선포하는 일로서 가장 절박하고 가장 중요한 과제중 하나일 것입니다.

교구민 모두가 나눔운동으로 복녘동포와의 나눔, IMF 이웃과의 나눔, 그리고 본당간의 나눔, 특히 농촌본당과의 나눔이 잘 이뤄지기를 기원합니다.

청소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목적인 배려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운동으로서 주일학교 재적률 높이기, 신신운동 프로그램 개발, 대화장소와 문화시설 제공, 역할 주기, 그리고 청년들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운동이 펼쳐지기를 희망합니다.

나부터 새롭게 거듭나는 삶



김지석 주교

대량의 실업자가 속출하고 집없이 떠도는 노숙자가 늘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청되는 것은 이기주의와 탐욕에서 벗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일입니다. “모든 회년의 기쁨은 무엇보다도 죄의 용서에 기초한 기쁨, 회개의 기쁨”(‘제삼천년기’ 32항)이라고 한 회년의 정신처럼 개인주의, 이기주의, 도덕적 타락에서 벗어나 참회의 기쁨을 발견하고 큰 잔치를 벌여야겠습니다.

1. 나부터 새롭게 하기

우리는 모든 잘못을 남에게 먼저 돌리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먼저 ‘나부터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느님의 대리자인 사제에게 겸허한 마음으로 자주 고해성사를 봄으로써 인간과의 화해를 바탕으로 하느님과 화해를 이룩해야 하겠습니다. 또 이 회개와 쇠퇴를 일상화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인 하느님과의 대화인 기도에도 맞들이고 성시간, 성체조배 등으로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께로부터 큰 힘을 얻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좋은 이웃되어주기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 준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마태오.25.40)라고 말

씀하신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정신적, 물질적인 모든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실직자, 장애인, 재소자, 소년·소녀 가장, 결식아동 등 소외계층을 돌보는 일 뿐만 아니라 도시교회와 농촌교회의 교류 및 농산물 직거래, 자매결연 등도 적극 전개해나가야 합니다. 또 굶주림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한 절미절식운동, 금식운동을 전개하고 남북화해와 일치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와 다양한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3. 함께 가요 우리

2000년 대회를 뜻있게 보내기 위해 타 종교와 교류하며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아울러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청소년들의 인격형성과 심성 개발을 위한 각종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문희 대주교

새로운 천년기를 바로 앞둔 올 한해는 그동안 교구의 모든 신자가 정성어린 기도와 참여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교구 시노드를 통하여 지금까지의 부실함을 벗어버리고 2천년 '은총의 대회년'을 기쁘게 맞아 교회의 올바른 모습을 드러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로부터 전해오는 우리 교회는 성령의 힘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고, 성자를 통하여 성부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착한 아들 딸이 되는 행복을 우리 자신이 얻어 누릴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도 하느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살도록 해야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깊이 깨닫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 노력함으로써 활기찬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교구 시노드를 통하여 얻은 결론들을 되새기며 그 실천 지침들을 따라 우리의 생활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길러 주시는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는 모두가 우리의 생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에 충실함은 우리 이웃의 생명에도 충실함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생명을 떠받치는 세상 만물에 이르기까지

실천통하여 교구시노드 결실맺자
우리의 생명에 충실해야, 가정에서도
착한 자녀되자
새날 새삶 운동에 참여요청

생명을 위한 모든 것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문화로 질서 지워지게 하고, 반생명은 철저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IMF 체제하에 실업과 도산의 어려움을 당하여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계속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그것은 곧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이웃의 삶이 움츠러들게 하는 일은 추호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적어도 무절제한 생활로 위화감을 조장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착한 자녀들인 우리는 가정에서도 참으로 착한 자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천년 은총의 대회년을 맞이 위한 준비로 새날 새삶운동에 동참하며, 우리 교구 시노드의 알찬 결실을 맺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래 사항을 실천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1.교구 시노드에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합시다.

2.2000년 대회년을 맞는 한국 교회의 '새날 새삶' 운동에 적극 참여합시다.

아버지 하느님을 새롭게 알자



이갑수 주교

1999년(성부의 해)에는 '대회년 준비를 마무리하는 교회 공동체와 하느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2000년 대회년 준비를 종합하려고 합니다. 한해 동안 우리는 하느님과 우리 자신, 그리고 이 사회를 새롭게 살펴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기의 전환점에서 삶의 근본을 다시 새롭게 배우고 익혀서 원칙을 똑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근본은 아버지 하느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아버지 하느님을 새롭게 알도록 온갖 노력과 정성을 다 쏟아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이 자신을 보여 주시는 터로는 자연이나 사람 등 다양한 길이 있으나 그 중의 하나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성경 공부를 위한 다양한 성서반이 마련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본당의 모든 모임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나부터 매일 하느님 말씀을 익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직접 알기 위하여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듣도록 익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일의 성서 말씀이 한 주간의 신앙생활에 지침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금융 위기로 고개 숙인 아버지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라는 이름의 최고 모습을 예수님이 바라보신 하느님 아버지의 모습에서 발견합니다. 이렇게 부권이 상실되고 참 인간 성숙을 위한 노력이 결여된 사회 현실이야말로 하느님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생각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과 하느님을 찾고자 하는 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를 새롭게 만나서 기뻐하는 공동체로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 하느님을 만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때 진정으로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게 될 것이며, 아울러 주어진 사회 여건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 주신"(로마 8,32) 사랑과 자비를 우리 모두 깊이 깨닫고 믿어 하느님을 "영원토록 찬양"(로마 9,5)하는 삶이 되시기를 빕니다.



김원택 교구장직무대행 신부

민족의 복음화는 우리의 사명

1999년은 '성부'께 봉헌된 은총의 해입니다. 먼저 이 희망찬 새해를 주님께 봉헌하며 '새로운 복음화'의 넷째 해 모토인 '민족공동체 복음화'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민족공동체의 복음화는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요한 17.21)라는 주님의 간구하심대로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사회와 민족 전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드러내는 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됨은 민족에 커다란 변화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란 무엇보다도 민족공동체 구성원이 먼저 진리를 추구하고 꾸준한 회개와 내적 쇄신을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나부터 새롭게' 변화되고 교회의 근본 사명인 선교 즉 '복음화'에 '함께' 기여이 투신하여야 하겠습니다.

민족 공동체의 복음화는 하느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아버지의 집을 향한 큰 순례여정"(제3천년기 49항)이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겠습니다. 즉 우리의 삶은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닮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민족공동체의 복음화는 우리 한사람 한사람의 회개없이 불가능한 것

입니다. 회개는 그리스도교적 사랑의 불가결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회개의 촉구는 흔히 윤리적으로 올바른 인생관을 상실해가는 현대사회에서 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제3천년기 50항 참조) 또 민족공동체의 복음화는 교회는 물론 사회와 민족 전체가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여기고 '좋은 이웃이 되어 줌'으로써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한 정의와 평화의 투신이야말로 2000년 대희년의 준비와 경축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제3천년기 51항 참조) 끝으로 민족공동체의 복음화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끊임없이 선포함으로써 가능성을 상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성직자, 수도자 그리고 교형 자매 여러분.

교회는 복음화하기 위해 존재하므로 가정과 소공동체의 복음화는 물론이고 교구의 복음화와 민족의 복음화는 피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교구 공동체 모두는 1999년 '성부의 해'와 다가오는 2000년 대희년을 앞둔 이 뜻깊은 시점에서 민족공동체의 복음화를 위해 온 정성을 기울여주시고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의 여정 걷자



박정일 주교

새로 맞는 1999년은 2000년 대회년을 앞둔 마지막 준비의 해이며 그리스도 강생 기원의 두번째 천년기를 마무리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회년을 잘 준비하기 위해 '성령의 촉구에 마음을 열고' 빛과 도움을 구하는 열렬한 기도를 바쳐야 하겠습니다.

'성부의 해'에 현세 생활이 우리에게 '하느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여정'이라는 인식을 새롭게 하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 굳게 매달려 진정한 회개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금년에 특별히 강조하는 성사는 회개를 위한 고해성사입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회개로 기쁨의 대회년을 맞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대회년을 준비하기 위해 먼저 요구되는 것은 회년의 정신을 올바르게 알고 거기에 맞춰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구 공동체도 진정한 회개로 회년의 이상을 성실히 실천해 '주님 은총의 해'를 여는 역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것이 사랑이며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도 사랑입니다. 사랑이신 하느님께 초점을 맞추는 '성부의 해'에 교회가 특별히 강조하는

덕은 '애덕'입니다.

우리 교구는 사랑이 메말라 가는 오늘의 사회 현실에 비추어 금년을 '사랑 실천의 해'로 정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우리 사회 안에 사랑의 문화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하느님 나라와 사회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교구 대회년 맞이 표어는 '하느님 나라가 오소서'입니다. 우리는 매일 같이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시기를 기도하고 우리 모두 사랑 실천으로 하느님 나라를 앞당기는 역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 실천사항

- ◇개인·가정 차원: ▲가족이 함께 기도하기 ▲이웃을 위해 기도하기 ▲용서 청하고 용서하기 ▲고해성사 자주 보기
- ◇소공동체차원: ▲가까운 불우이웃 돕기 ▲동네 지역 봉사
- ◇본당·지구·교구 차원: ▲가난한 농어촌본당 공소돕기 ▲실직자 돕기 ▲북한 돕기
- ◇일반사항: ▲복지시설 운영활성화와 방문·후원 ▲사랑의 헌금함 설치 ▲헌혈, 장기 기증



박석희 주교

가장 미소한 자에게 사랑을

2000년 대희년을 눈앞에 둔 1999년은 하느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며 만물의 아버지이심을 기리며 사는 해,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갈 것을 재다짐하는 해입니다. 어려운 이 때에, 대희년을 맞이하기 위해 “사랑의 해”를 선포한 교회는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함으로써 자기 본모습을 더욱 드러내야겠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회칙들을 통해 예수께서 만난 사람들이 “남달리 가난한 사람들, 생계 수단이 없는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사호불의로 고통받는 사람들, 집없는 사람들,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의미심장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나선 그 사람들을 우리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본당은 모든 사목활동에서 가난한 자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자세로 임해야겠습니다. 먼저 본당 내의 어려운 가정, 자녀들을 도시로 보내고 시골에 홀로 남은 노인들의 삶을 적극 돌봅시다. 또 부모님을 일찍 여윈 소년소녀 가장들과 벌써부터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특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복지활동을 통해 사회정의와

평화를 위한 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의 봉사는 사회정의의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고 사랑과 정의, 정의와 평화는 서로 연결되어 구원사업이 됩니다.

우리 교구도 금년 성부의 해를 맞이하여 사랑이신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이를 위해 주교단에서 발표한 “새날 새삶”운동의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열심히 실천합시다. 우리 본당과 교구 안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의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즐거이 응답하며 삶으로써 이 어려운 난관을 함께 극복합시다. 그 어느 때보다 사랑의 연대운동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연대운동이 진정 우리에게 “새날 새삶”을 기약할 것입니다.

사목교서에 따른 실천사항 : ▲신약성서 특히 요한복음, 요한서간을 읽고 묵상함 ▲제2차 바티칸공의회 사목헌장 공부 ▲예수께서 만난 미소하고 가난한 이들을 4복음서에서 찾아봄 ▲냉담자, 실직자, 노인, 소년 소녀가장 등에게 관심을 가짐 ▲사목협의회의 사회복지부와 빈첸시오회 활동 활성화 ▲본당 예산의 5% 이상인 자선비 적극 활용 ▲사회복지시설을 자주 방문 ▲본당 상황에 맞는 사랑 실천 1-2개 하기 ▲검소한 생활

겨레와 함께 하는 교회 공동체
영남지역과 자매결연 여정,
헌미헌금운동 연중 실시
통일기금 적립 나눔 생활화



윤공희 대주교

2000년 대회년을 앞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동서남북에 있는 우리 겨레 모두의 하나됨을 염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겨레와 함께 하는 교회공동체'를 올해의 교구 사목교서 주제로 삼았습니다.

각 본당이나 단체 차원에서 겨레와 함께 하는 다양한 사목활동을 구체적으로 펼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겠지만, 해방과 구원의 축제인 2000년 대회년을 내다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자신을 희생하고, 평화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동서가 화합하고 남북이 한겨레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더욱 힘을 모아 이 땅에 빛을 가져오는 도구가 된다는 것은 시대의 징표에 따른 시의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새날 새삶'운동의 네 가지 주제들과 관련된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교회의에서 요청한 '새날 새삶'운동을 우리 교구에서도 대회년 맞이 생활실천운동으로 펼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모두 '새날 새삶'의 정신으로 2000년 대회년을 준비하며 복음정신과 교회정신에 입각해 동서남북의 '하나됨'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동서남북의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가 이뤄지는 '새 하늘 새 땅'에서 모든 중

류의 억압과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을 약속한 회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교구는 각 본당과 단체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세부사목계획을 세워 대회년 맞이 운동을 실시하고, IMF체제하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사회사목 활동을 전개하며, 동서화해와 남북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와 교류를 병행해 나감과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과의 나눔 등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역의 가난한 이웃을 위해 재정과 인원을 최대한 지원하고 소공동체와 기존의 단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며, 실직자·탈북자·북한동포 등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미헌금운동을 연중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타종교 단체 및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지난해와 같이 사회사목예산 10%를 확보하고, 본당예산의 1%이상을 통일기금으로 적립하는 등 나눔을 생활화하기로 했습니다.

각 본당과 지역은 실천사항을 검토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 몇 가지만이라도 지속적이고 실속 있게 실시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병호 주교

2000년 대회년을 향해가는 우리의 여정이 이제 그 문턱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올해를 '하느님 아버지의 해' 로 지내면서 대회년 맞이 준비를 마무리 할 것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올해의 목표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만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모든 신앙인들이 그 시야를 넓고 깊게 하는 데에 있다' 고 했듯이 우리는 우리를 지어내신 하느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잠시 세상에 살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의 삶 속에서 우리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잊고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해는 사랑이라고 하는 대신덕(對神德)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혹독한 경제적 시련은 우리 각자와 온 사회가 잃었던 분수를 되찾고 환상과 허위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참모습으로 돌아가는 기회입니다. 이에 우리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마음을 써야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을 통해서든지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가는 길을 먼저 걷지 않는

자신의 참모습으로 돌아가는 해

한 아버지께 돌아가기는 불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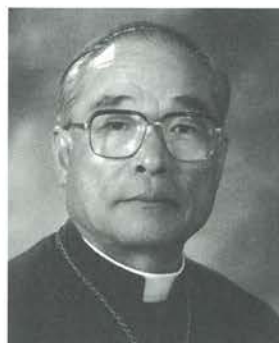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떠나왔다가 다시 돌아갈 고향이 분명히 있으며, 하루를 살아도 영원한 고향인 아버지 집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때에만 그 삶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음화에 초점을 맞춰 대회년 맞이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나부터 새롭게' 라는 표어대로 각자가 쇄신을 위해 노력하는 일입니다. 이런 바탕위에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대회년의 기쁨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한국 주교단이 반포한 '새날 새삶' 운동에서는 이런 활동을 펼쳐나가는데 우리 각 개인의 쇄신에서부터 사회의 변화까지를 목표로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회년을 준비하는 마지막 해가 우리 각자와 공동체, 사회에 참으로 새로운 기쁨과 희망을 주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힘을 다 합시다.

하느님 사랑안에 성장하는 교회



김창렬 주교

드디어 교구 선교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올해를 위해 교구는 93년부터 '제주 복음화 100년'을 사목주제로 선포하며 준비해 왔습니다. 100주년을 맞는 우리 교구는 그 동안 내적인 준비를 위해 같은 지향으로 많은 기도하고, '선교 100주년 준비위원회'를 발족해 구체적인 외적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모두는 그 어느 때보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삶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21세기로 진입하는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불안과 초조 등의 세기말적 현상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세기말적인 불안과 초조에 대한 해결의 답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신앙, 경배를 통해 유혹을 이겨내시고 세상에서 하느님의 구원사업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희망이 있기에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기쁨과 희망으로 맞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2000년을 대회년으로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십니다. 인간의 고난과 소외 속에도 하느님은 늘 인간과 함께 계셨고 인간은 하느님을 다시 만났다는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 알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서의 주제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은 바로 우리들이 믿는 하느님의 자비와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에 대한 관계를 드러내 줍니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 있는 교회는 또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신앙실천을 통한 교회성장을 위해서 제주교구는 한국교회가 대회년을 준비하면서 실천하는 '새날 새삶 운동'과 함께 '개인 및 교구 신심행사 권장', '예비자 전교와 쉬는 교우 회두', '서로 나누는 교회공동체 건설' 등 사목교서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자렛에서 시작된 인류구원이라는 복음의 시작을, 바로 이곳 제주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는 제주도에 하느님의 사랑이 가득 차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박성대 교구장직무대행신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하신” 그리스도 강생 2000년이 되는 위대한 은총의 해를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인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온 인류를 위해서도 특별한 대회년”(제3천년기 25항 참조)이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준비기간을 ‘세계적 피정’의 시간이 라고 하셨습니다.

은총의 대회년 준비의 마지막 해인 1999년은 ‘하느님 아버지의 해’입니다. 이 ‘정부의 해’에 우리 교구는 ‘화해와 나눔’에 초점을 맞추어 더없는 자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회개와 화해는 성서와 ‘제3천년기’에 나타난 대회년의 핵심주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버지를 떠나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방황해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은총의 대회년의 해에 우리는 하느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모든 사람들과 화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화해가 진실한 것이 되려면 필연적으로 회개가 요구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와 화해의 성사인 고해성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이 성사를 통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해와 나눔 그리고 화해의 해

‘정부의 해’에 ‘화해’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중요한 주제는 애덕실천, 즉 ‘나눔’입니다. IMF 한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 많은 현실이라 나눔은 더욱 절실합니다. 한국 주교회의는 이런 모든 점을 집약하여 ‘정부의 해’인 1999년에는 회년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새날 새삶’운동을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이 운동은 크게 네가지의 기본틀, 즉 ① 나부터 새롭게 ② 참된 가정 이루기 ③ 좋은 이웃되어주기 ④ 함께 가요, 우리’로 정하고 모든 교구가 이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함께 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교구도 사제평의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2000년 대회년 교구 준비위원회에서는 그 기본 방향에 따라 회심, 생명, 나눔, 일치운동 등 4가지 실천운동을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루 24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참으로 귀중한 시간입니다. 대회년 준비의 마지막 해인 99년을 보람있게 지내어 2000년 은총의 대회년에는 우리 자신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사람, 해방된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양들과 목자가 다 함께 은총의 풍요를 기뻐하는 대회년이 되길 축원합니다.



사랑의 새계명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4

1998년도 추계 주교회의의 결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1998년 10월 12일-15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관(서울 중곡동)에서 열린 1998년 추계 정기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신앙과 도덕에 관한 저작물 출판 승인 규정

교회 관할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신앙과 도덕에 관한 저작물을 무분별하게 출판함으로써 신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주교회의는 교회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출판 관계자와 신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차원에서 관련 교회법들을 모아 발표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새로운 규정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관련 교회법들을 모으고 몇 가지 구체적인 절차들을 보완한 것이다. 이는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에도 신기로 하였다(별첨 1).

2. 한국 주교회의의 정관 수정

교황 성하의 1998년 5월 21일자교서 [주님의 사도들](Apostolos Suos)의 지침과 현실적 이유에 따라 주교회의의 정관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3. 교회법 보완 규정

각 지역교회의 사정에 따라 각국 주교회의가 보완해야 할 구체적인 교회법 규정들을 각 위원회 별로 배분하여 검토하고 구체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4. [평신도의 사제 교역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후속 조치

[평신도의 사제 교역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에 대하여 해설자료를 내기로 하였다.

5. 주교대의원회의 아시아 특별 총회 후속 조치

한국 사제양성지침서를 재작성하고, 사제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사제 평생교육원의 설립에 관하여 연구하기로 하였다. 또한 외방 선교 문제에 대해서도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그 길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6.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하 방한 요청

주교대의원회의 아시아 특별 총회 결과를 발표하시기 위하여 아시아 지역을 방문하시는 길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하께서 한국도 방문해 주시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하였다.

7. 새 [어린이 미사]의 사용 시기 문제

교황청 경신성사성이 1998년 5월 30일 승인한 새 [어린이 미사]를 1999년 봄부터 전국에서 사용하기로 하였다.

8. 전국 단체 승인 요건 승인(별첨 2).

9. '새날 새삶' 운동 담화문(별첨 3).

10. 제4회 한일 주교 교류 모임

미래 지향적으로 한 일 관계를 정립하고자 시작한 한 일 주교 교류 모임을 11월 10일-13일까지 한국에서 갖는다.

〈별첨 1〉

신앙과 도덕에 관한 저작물의 출판 승인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그리스도 신자들의 올바른 신앙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신앙과 도덕에 관한 저작물의 출판 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사목자의 의무와 권리)

교회의 목자들은 신앙과 도덕의 진리가 온전히 보존되도록 저작물이나 홍보매체들의 사용이 그리스도 신자들의 신앙이나 도덕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감독하고, 또한 신앙과 도덕에 관한 저작물을 판단하여 올바른 신앙이나 선량한 도덕을 해치는 저작물의 전시, 판매, 배포를 금지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교회법 제824조 1항 참조).

제3조(저작물의 범위)

저작물이란 서적뿐만 아니라 공적으로 배포될 모든 저작물, 곧 신문, 잡지, 기타 인쇄물과 복사물, 오디오/비디오 테이프, CD, 전자 출판물 등을 포함한다.

제4조(승인의 주체)

저작물의 출판 승인 주체는 다음과 같다.

1. 사도좌(교회법 제823조 1항과 2항 참조).
2. 주교회의(교회법 제823조 1항과 2항 참조).
3. 저자의 소속 교구장(교구장뿐 아니라 그의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들 포함)(교회법 제824조 1항; 교회법 제134조 참조).
4. 저작물의 발행소가 있는 교구장(교회법 제824조 1항).

제5조(성서의 출판)

성서와 그 번역판은 사도좌나 주교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출판할 수 있다(교회법 제825조 1항).

제6조(전례서와 기도서의 출판)

- ① 전례서와 그 번역판은 사도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그것의 출판은 주교회의에 속한다(교회법 제838조 2항과 3항).
- ② 신자들의 사적 사용을 위한 기도서도 교구장의 허가 없이는 출판되지 못한다(교회법 제826조 3항)

제7조(교리서의 출판)

- ① 교리서뿐 아니라 교리교육에 관한 기타 저작물이나 그 번역판은 교구장의 승인이 있어야 출판할 수 있다(교회법 제827조 1항).
- ② 주교회의는 유익하다고 여기면 사도좌의 승인을 미리 받고 그 지역을 위한 교리서가 출판 되도록 힘써야 할 임무가 있다(교회법 제775조 2항).

제8조(교령집의 출판)

어떤 교회 권위가 출판한 교령집이나 기록 문서집은 그 권위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다시 출판할 수 있다(교회법 제828조).

제9조(학교 교과서 채용)

성서, 신학, 교회법, 교회사 그리고 종교나 윤리 규율에 관한 문제들을 다룬 책들은 교회 관할권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학교 교과서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교회법 제827조 2항).

제10조(전시, 판매, 배포)

- ① 종교나 도덕의 문제를 다룬 책이나 기타 저작물은 교회 관할권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면 성당이나 경당에 전시되거나 판매되거나 배포될 수 없다(교회법 제827조 4항)
- ② 본당 사제와 경당 책임자는 교회 관할권자의 출판 승인을 받지 않은 저작물이 성당이나 경당에서 전시, 판매, 배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출판 승인 신청)

신앙과 도덕에 관한 저작물을 출판하여 성당이나 경당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는 저자나 발행소는 교회 관할권자에게 저작물 내용을 제출하여 출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첨부 1). 또한 이미 출판한 저작물의 사후 승인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검열인)

- ① 주교회의의 신앙교리위원회는 독자적으로나 주교들의 요청에 따라 신앙과 도덕에 관한 저작물을 검열하거나, 교구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교회법 제830조 1항 참조). 이때 저작물에 대한 판단은 합의체적 행위여야 한다(교회법 제119조 참조).

〈첨부 2〉

검열 판정서

저작물 이름과 형태: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검열인:
검열 의견:

년 월 일

교구 검열인 (인)

〈첨부 3〉

출판 승인서

저작물 이름: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의 저작물에서 그리스도 신자들의 신앙이나 도덕에
해로운 것이 있음을 찾지 못하였기에 그 출판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교구장 (인)

〈별첨 2〉

전국 단체 승인 신청 요건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서로 사적 협정을 맺고 결성한 사립 단체(교회법 제299조 참조)가 주교회의에서 전국 단체로 승인을 받으려면 전국 단체 승인 신청서, 정관, 연혁, 교구 조직 확인서 등을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총대리회의(2월과 9월 초순경) 한 달 전까지 주교회의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 대표와 지도신부 또는 책임 주교가 서명 날인한 신청서를 제출한다
(첨부 양식 참조).
2. 아래의 요건을 갖춘 정관을 제출한다.
 - (1) 총칙 - 명칭, 목적, 사업, 소재지
 - (2) 회원(조직) - 전국과 교구의 조직, 회원의 자격, 회원의 권리와 의무, 임원 구성, 임원 선출 방법,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기, 임원의 보선, 고문, 지도신부
 - (3) 회의 - 회의 구성, 회의 소집 방법, 의결 방법, 의결과 심의 사항
 - (4) 지도신부 또는 지도주교
 - (5) 재정과 회계 - 재원 조달과 관리, 회비, 회계 방식과 내용
 - (6) 부칙 - 시행일, 준용 규칙
3. 전국 단체가 되려면 각 교구 조직이 2/3 이상 설립되어야 한다.
4. 신청 사립 단체의 연혁과 회원 현황을 제출한다.
5. 각 교구 조직 승인 확인서를 제출한다.

전국 단체 승인 신청서

단체 이름

사무국 주소

(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설립 목적

사업/활동

교구 단체로 승인한 교구

- 제출 서류: 1. 정관
2. 연혁
3. 각 교구 승인서
4. 재산 현황(동산, 부동산)

저희 단체는 교회법과 주교회의의 모든 관련 규정을 성실히 따를 것을 서약하며, 전국 단체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지도신부 :

〈별첨 3〉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담화
'새날 새삶' 운동을 펼치며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탄생 2000년이 되는 뜻깊은 역사적 전기를 맞이하면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2000년을 특별한 “은총의 대회년”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 탄생 후 2000년은 그리스도

인들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온 인류를 위해서도 특별한 대회년입니다”([제삼천년기], 15항). 회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으로 시작된 ‘은총의 해’를 ‘지금 여기에’ 선포하고 구현하는 것입니다.

2000년 대회년은 우리에게 참회와 회개를 촉구하고, 정의와 평화, 일치와 실현을 위하여 투신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통하여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상에 응답할 준비를 갖추고자 합니다.

2000년 대회년을 준비하고 있는 이 기간은 우리의 신앙을 깊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하고 매력적이고 호소력 있게 복음의 메시지를 세상에 선포하여 우리가 사는 공동체들, 곧 가정, 이웃, 일터, 시민 공동체 그리고 사회 전체의 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입으로 선포하는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삶으로 세상에 증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온 인류의 바람을 유일하고 결정적으로 이루신 그리스도([제삼천년기], 6항 참조)의 복음이 오늘 모든 이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제삼천년기], 38항 참조).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이러한 회년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새날 새삶’ 운동을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새날 새삶’ 운동은 새로운 천년기라는 새날을 맞아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우리의 구세주로 태어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과 다짐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강생의 사건을 오늘에 살려 인간의 본모습을 되찾고 모든 이가 함께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실직자 문제를 비롯한 여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새날 새삶’ 운동은 크게 ‘나부터 새롭게’, ‘참된 가정 이루기’, ‘좋은 이웃 되어주기’, ‘함께 가요, 우리’ 라는 네 가지 기본적 차원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위의 네 가지 기본 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실천방안들을 제시합니다.

“나부터 새롭게”

- 1)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기
- 2) 하느님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 익히기
- 3) 제자리 찾기
- 4) 입장 바꾸어 생각하기

“참된 가정 이루기”

- 1)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대화하기
- 2) 생명의 신성함을 깨닫고 존중하기
- 3) 가족이 함께 사회에 봉사하기

“좋은 이웃 되어주기”

- 1) 용서 청하고 용서하기
- 2) 서로 돕고 나누기
- 3) 평화를 위하여 헌신하기

“함께 가요, 우리”

- 1)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일하기
- 2) 그리스도교의 재일치를 위하여 기도하고 힘쓰기
- 3) 타종교를 존중하기
- 4) 민족 화합에 앞장서기
- 5) 자연을 존중하고 환경을 되살리기

그러나 각 개인과 가정, 본당과 교구, 수도 공동체들은 이러한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각자 놓여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더 구체적이고 고유한 실천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2000년 대희년을 준비하는 이 시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기도하는 시기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희망의 시기이고, 희년의 풍부한 성서적 전통에 따라 서로 용서하고 나누며 잃은 것을 도로 찾는 기쁨의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펼치는 ‘새날 새삶’ 운동이 모든 이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새로 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1998년 10월 15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새날 새삶’운동 1

나부터 새롭게

회년은 온 인류의 시선이 하느님을 향하도록 이끌고 세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봉사하도록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자 자신부터 새롭게 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도록 하십시오.”(로마 12,1-2).

“새로운 천년기를 위한 최상의 준비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의 가르침을 각 개인과 온 교회의 생활에 되도록 충실하게 적용하려는 새로운 투신으로 표현될 수 있을 뿐입니다.”(「제삼천년기」, 21항).

‘새날 새삶’운동 2

참된 가정 이루기

이기주의와 물질주의의 팽배로 이혼이 증가하고 곳곳에서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이며 핵심인 가정이 파괴됨으로써 사회의 갖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사회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 주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만물의 창조주께서 혼인 생활을 인간 사회의 원천과 기초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당신의 은총으로 큰 성사의 품위를 갖추게 하셨으므로(에페 5,32) 부부와 가정의 사도직은 교회를 위해서나 시민 사회를 위해서나 특수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느님께, 사회의 기초적이고 살아있는 세포가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명은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느님께 함께 기도하며, 가정을 교회의 가정성소로 드러낼 때 성취될 것입니다. 가족 전체가 교회의 전례 예배에 참여하고, 이웃에게 친절히 대하며,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형제에게 봉사하고자 정의와 선업을 촉진해야 될 것입니다.”(평신도 교령. 11항)

1999년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사업계획 및 해설



강주희(요한 · 한국평협 사무총장)

순위	목표	중점사업	세부실천계획	비고
		2. 지도자 연수 및 심포지움 개최	1. 선교지도자 연수 2. 심포지움 개최	
		3. 민족화해	1. 우리민족 서로돕기 (북한돕기) 등	
3.	경제위기 극복 운동	1. 경제살리기 운동	1. 본당별 아나바다물 운동의 생활화 2. 경제살리기 운동 지속 3. 실직가정 돕기 국민운동 동참	
4.	사회교리	1. 생명존중하기 2. 우리농촌 살리기 및 도농협력 3. 사회교리 실천과 도덕성 회복운동	1. 인간복제 반대 및 피임약 무상제공 반대 2. 대회년 중 사형집행정지 촉구 3. 청소년 선도(따돌림 등) 1. 우리농촌 되살리기운동 지속 2. 도농협력 강화 1. 사회교리 실천의 생활화 2. 질서지키기 3. 부정부패 멀리하기 4. 어르신 공경하기	
5.	평협조직의	1. 평신도 제자리 찾기 2. 평협조직의 강화 3. 홍보활동	1. 교구별 평신도 자질향상 교육 (지도자 육성, 강사요원 양성) 2. 지구 및 본당교육 지원 3. 각 단체 활성화 1. 교구 평협과 각 단체간의 유기적 협조 2. 필요한 단체 육성지원 3. 평협조직의 체계적 확립 1) 각 교구 회칙 정비 2) 조직 상호간의 친교와 조직의 효율성 제고 3) 지구 본당간의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4) 평협 발전방향 모색 1. 평협 30년사 발간 2. 평협회보(한국평협) 정기발행	

▶ 머리말

1968년 7월에 창립한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이하 한국평협이라 한다.)는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30년의 역사 가운데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중에도 가장 큰 변화는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에서의 가난을 이긴 경제 성장을 들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누대 독재정권의 승계로 인한 얼룩진 세월이 상당기간을 점유했다.

그런 와중에 한국교회는 1981년 9월의 조선교구설정 150주년 기념미사와 1984년 5월 천주교 전래 200주년과 103위 시성식, 1989년 10월 제 44차 세계 성체대회 등의 큰 행사를 치루면서 교세는 급격히 성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정의의 실현과 민주화를 위한 줄기찬 외침이 많은 분의 공감을 샀으며 심지어는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가 종교를 가진다면 가톨릭을 택하겠다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한국 가톨릭은 우리나라에서 수효보다도 호응도에 있어서 타종교를 능가할 정도였다. 그러나 근래들어서는 서구문물의 급격한 유입과 일부 부유층의 생활수준이 급격히 향상되는 등 불균등한 발전으로 이기주의, 물욕주의가 극도로 팽배하여 도덕성이 무너지고 윤리적으로 종교마다의 선(善)에의 외침이 구두선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즈음 예수님 탄생 2,000년 대희년은 눈앞에 닥쳐왔다. 교회는 21세기 (3,000년기)를 준비하는 마지막 5년의 해를 맞이하고부터는 여러 가지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때가 차차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신 (갈라 4, 4-5) 주님의 은총의 해 (이사 61, 2 : 루가 4, 9)가 시작된지 1년 후면 2,000년이 된다. 교황께서는 삼천년기를 발표하시면서 대희년 맛을 준비를 당부하신다. 한국 주교회의에서도 2,000년 대희년 맛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 구세주 강생 2,000년의 해가 인류에게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오늘의 우리 세상은 또 교회인 우리는 어디에 와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주교회의가 발간한 희년의 길잡이는 여러 가지 방향과 가르침을 주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한국 평협에서도 지난 97년도(성자의 해)에는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고 평신도 주일 강론자료를 내면서 신자 각자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신을 촉구했고 작년 98년도(성령의 해)에는 '제자리 찾기'운동을 거교구적으로 전개했으며 평협의 자가진단과 21세기 비전을 두차례 심포지움을 통해 정립하기도 했다. 금년도(성부의 해)에는 '사랑의 마음으로 대희년을 준비합시다' 슬로건으로 이 해의 평신도 운동을 전개해 나가려 한다. 1년 밖에 남지 않은 대희년을 명실공히 희년(禧年)답게 맞이해야 되지 않겠는가?

한국 평협은 1999년도 중점 사업목표를

1. 대희년 맞이 <새날 새삶> 운동

2. 선교의 활성화
3. 경제위기 극복 운동
4. 사회교리 실천
5. 평협조직의 활성화 로 잡았다.

1. 대회년 맞이 <새날 새삶> 운동은

1) 나부터 변해야겠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자인 우리각자가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해야겠다. 세례성사로 새로 나게 하신 하느님은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새아침과 새일거리를 주신다. 우리는 날로 새로 태어난 기쁨과 감사를 주신 데 대한 고마움을 기도로 시작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하느님의 말씀과 가르침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신자 각자의 제자리(원상)를 되찾자는 것이다. 신자 모두가 각기 제자리를 찾겠다는 것은 무슨 권한이나 이권을 찾자는 게 아니다. 일터에서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성실한 자기관리를 게을리하지 말자는 것이다. 나아가서 모든 사람과 단체는 이기적인 편견과 판단으로 오류를 범치 말고 서로가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면 일상사에서 용서와 이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참된 가정 이루기이다. 우리 가정은 근래와서 특히 도시인들은 핵가족제도의 도입등으로 가족은 4분 5열 되간다. 도시가정은 가족이 함께 모이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바쁘고 다른 일로 분주한데 저녁기도 시간에는 다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겠다. 그리고 성가정의 모범을 따라 가족간의 대화로 사랑의 보금자리를 구축해야겠다. 그리하여 생명의 신성함을 깨닫고 부모와 자녀간의, 자애와 효경의 싹을 틔우며 서로 존중하고 매사에 원만한 함의로 작은 교회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겠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여름철 휴가를 같이 짜서 사회나 불우단체에 함께 가서 봉사함도 가족의 일치를 위한 좋은 계기가 마련될 것이므로 이를 권장 한다.

3) 다음으로는 좋은 이웃이 되어주자. 다른 이가 내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기를 바라기 이전에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돼 주는 것이다. 잘잘못을 따질 일에는 먼저 신자답게 용서해주고 용서를 받으며 이웃간의 우정을 돈독히 다져 길흉사에 서로 협동하고 골목길도 내가 먼저 쓸어 이웃을 편안케하며 불우한 이웃이 있으면 형제적 사랑으로도 도와주고 봉사하며 삶의 가치를 정으로 나누자는 것이다. 또한 채권, 채무관계에 있어서도 가난으로 인한 상환 능력이 없는 것은 깨끗이 부채의 탕감을 해주고 신자 가정만이라도 전세를 인상치 않으며 나눔을 생활화하는 기풍의 조성은 대회년의 큰 의미를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다.

4) 우리는 이 세상 삶을 혼자서는 살 수 없다. 나하나 개인만은 옳을 수도 없고 개인만으로는 한시도 살 수 없는 공동체안에서 연대성의 원리속에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웃과 함께 가야된다. 각박한 이 시대의 국가와 사회, 이웃을 위한 함께 생각하고 아파하고 기뻐하며 일하는 기풍이 조성되어야한다. 지역의 갈등, 빈부와 계층간의 갈등이나

학연, 지연, 혈연등으로 어지러운 나라안을 분열시켜서는 더욱 안되겠다.

그래서 평협은 그리스도교의 재일치를 위해 앞장서며 타종교인과의 협력하고 존중하며 민족 화합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동서의 화합과 남북의 화해를 위해 가려진 마음의 장벽 제거에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금년도에는 10월 하순(24일 예정) 대회년 준비 평신도 대회를 개최하여 우리가 나아갈 바를 세상에 알리는 자기다짐의 선언과 신자 각계각층의 입지에서의 자기성찰과 미래지향의 내용이 담긴 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각 전문 분야대로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안으로는 지도자의 양성으로 교회 쇄신의 기풍을 다지고 밖으로는 신자다운 모범을 보여 그리스도인다운 인격형성에 기여토록 하자.

2. 선교의 활성화에 관하여

1) 선교 활성화를 촉구함은 한국 교회가 당면한 교세의 감소 추세의 문제이기도 하다. 세계 인구 분포에서 가톨릭 신자수는 18%에 달한다. 한국교회에는 평균적으로 인구대비 8%에 미달한다. 그래서 주교회의 의장이신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대주교님은 자신의 임기 중 신자 배가운동을 선언했다. 이는 서울에만 국한된 일이 아닌 전국 교구의 문제라고 보고 신자배가 운동을 거교구적으로 전개해 나가자는 것이다. 또한 신영세자 못지않게 냉담자가 날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니 1인 1명의 냉담자 발굴(회두)과 이 운동의 결실을 위해 대부모, 대자녀 찾아보기를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2) 선교 지도자는 비록 교리신학을 공부한 선교사만의 할 일이 아니다. 신자 각자의 모범된 행실로 선교에 앞장설 일이다. 또한 선교 지도자를 교육 양성시켜 선교 현장으로 파견할 일이며 선교활성화 방안을 모색키위한 심포지움 등을 열어 선교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3) 이렇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끼리의 서로돕기의 기풍을 일으켜 북한동포와 해외교포(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우리동포) 선교에도 나서야 될 것으로 본다.

3. 경제위기극복 운동

한국경제의 침체와 IMF경제위기 도래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신자들 각자도 흥청망청 대열에 함께한 죄는 벗을 길 없다. 내 스스로 하느님 재산의 일시적 관리자란 것을 명심하고 선량한 재화의 관리자가 되도록 노력하자. 낭비와 사치 풍조를 멀리하고 가난한 마음의 신자다운 씬씀이로 하느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앞장서고 계도해 나가자. 재작년부터 평협이 앞장선 '아·나·바·다·물' 운동을 본당 단위로 그 나눔장터를 상설하고 지역사회 단위의 운동을 확산시키도록 하자.

대기업의 빅딜과 구조조정, 중소기업의 도산과 파멸로 실직자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실직의 아픔을 참고 견디기 어려운 이들이 많은데 우리는 이 분들의 처지를 위로하면서 실의를 이기고 살아가도록 형제애를 발휘해 나가야한다. 이웃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

이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 가장 큰 계명도 사랑의 계명(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5,12)이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4. 다음으로는 사회교리 실천을 생활화하자는 것이다.

1) 인간 생명을 존중하자. 인간 복제란 왜 말인가. 인간의 알팍한 지식으로 유전자를 조작, 복제 인간을 만든다고 세상은 떠들썩하다. 인간의 생명은 한 순간도 하느님외에 어느 누구도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없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느님의 영역을 아무리 자유의지를 받은 인간이지만 복제 인간까지의 권리의 위양은 하지 않았다고 본다. 또한 저간 TV방송에서의 피임약을 무상제공한다고 하고 구모씨의 아우성 보도후 우리나라 전역은 인간의 성을 온통 개방이나 한 듯 떠드는 한심한 작태는 언어도단이다. 그러지 않아도 미혼모와 고아를 수용할 곳조차없는데 기상천외의 발상으로 윤리질서를 어지럽혀서야 되겠는가? 우리 평협이 앞장서 이에 대한 강력한 저항(반대) 운동에 나서야 될 때라고 본다.

2) 생명의 존엄성을 무엇보다 중히 여기는 우리 교회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여러 신심 단체에서 주창한 바 있으나 이의 관철은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다. 그러나 2,000년 대회년 1년간 만이라도 정부는 사형제도를 중단토록 촉구하고 각급학교에 만연한 사제지간의 지켜야 할 도리가 어긋나고 학생의 따돌림(왕따), 교액과의 공부의 폐단 등은 이땅에서 하루속히 배격해야 될 과제이다. 그리하여 이 나라를 이어받을 청소년이 선량해지도록 천주교 신자부터 계도해야 되겠다.

3) 우리 농촌을 살리고 도농협력을 증진시키자.

우리 농촌은 농약으로 황폐해 가고 있다. 퇴비의 증산으로 산성화되는 토양을 살리고 유기농법 경작으로 먹거리 문화를 되살리는 운동을 피아하며 귀농운동의 권장으로 실직자를 감소시켜 보자. 어느 때는 농자천하 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더니 현재는 농자천대지대본(農者賤待之大本)이 되가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또한 도농 직거래 협력으로 농민이익을 보장해주는 신토불이(身土不二)의 농경문화를 재건하는데 앞장서야겠다.

4) 사회교리 실천과 도덕성 회복운동

이 나라가 이꼴로 변화한 것이 타인과 타교인의 잘못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저 멀리 작은 촛불 하나로도 불인 것은 식별된다. 인구의 8%가 가톨릭 신자인데도 왜 우리나라에는 부정부패 비리 등의 폐해가 이토록 만연할까? 우리 교회의 잘못은 없고 내 탓은 없단 말인가? 이 모든 무질서와 부정부패, 어른 업신여기기 등은 모두 우리의 잘못이며 불찰로 야기된 것이다. 가톨릭 교리중에 사회교리를 좀 가볍게 다루었으나 최근에는 이를 보강해서 사회교리를 가르치고 사회교리학교까지 개설했으니 모든 신자가 사회교리학교 공부를 하도록 권장한다. 모든 신자가 참가하기 어려우면 우선 사목위원을 비롯한 각 단체 임원만이라도 먼저 사회교리공부를 해서 천주교 신자의

부정, 비리에의 동참을 차단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5. 평협의 활성화

1) 평신도 제자리 찾기

가톨릭 신자가 되려면 1년 또는 6개월 간의 교리공부를 하여 영세 받는 것이 관례다. 영세입교 후 간혹 각 단체가 주도하는 신심교육(꾸르실료, ME, 성령세미나, 성체조배, 사회교리, 행가운 등)에 참가하는 이는 그 수가 많지 않다. 일반신자들은 대개가 주일 신자이며 매일미사 참가자는 더군다나 극히 작은 수의 신자들 뿐이다. 아직도 새로운 기도문을 외지못하는 이가 있을 정도로 교회와의 친근도도 그리 대단치 않은 이가 많다. 또한 2,000년 대희년에는 신자라면 믿지 않는 이보다는 여러모로 모범되고 즐겁고 기쁜 생활을 해야 할텐데도 우리는 너무나 냉정한 물골로 나날을 지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00년을 좀더 뜻있게 맞이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신자로서의 자질을 향상(교육)시켜야 하고 지도자의 육성과 강사요원의 확보로 지구평협이나 본당의 요청에 부응토록 해야겠다. 그래서 금년에는 본당과 지구평협 각 단체의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직을 정비하고 자질향상을 적극 지원하여 지구평협과 본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해야겠다. 지구평협과 단체마다의 특별한 행사나 활성화를 위한 예산면의 지원도 각 교구평협은 고려해야 할 일이다.

2) 평협조직의 강화 방안

평협은 교구 각 단체의 협의체이다. 각 단체와 지구평협과의 정례적 회의나 단체 상호간의 유기적 협조체제가 유지되도록 앞장서며 복음화를 위해 필요한 단체에 육성 지원하고 기존 단체의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토록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며 평협과 지구평협, 본당 및 각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을 평협발전위원회를 열어 계속 연구해 나갈 것이다.

3) 홍보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두에 언급한대로 금년이 평협 창립 30주년이 되는 해로서 평협 30년사를 편찬, 발간하고 평협회보를 정기적으로 보급하여 평협의 활동 상황을 모든 분이 알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그 외 각 교구마다의 기념적 행사나 뜻있는 큰 모임에 전적 호응하며 동참할 것을 이 기회에 당부드린다.

▶ 맺는말

전국평협 회칙 2조(이회는 복음적 사도적 정신으로 회원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경험과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각 교구 평협과 단체들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등을 참고로 하면 평신도의 역할이 막중함을 알 수 있다.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각자는 각자의 영역에서 하느님 백성과 그리스도인의 표양으로 열심히 자기 주변을 정화하며 2,000년 대희년의 기쁨을 온누리에 나눔으로 열매맺게 해야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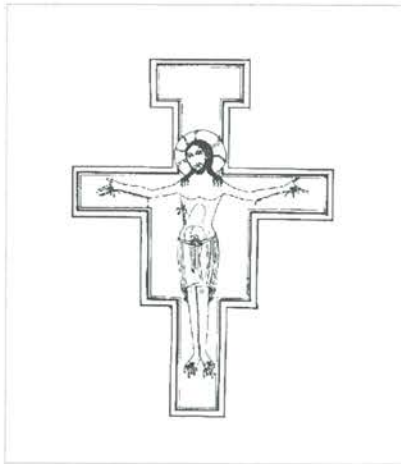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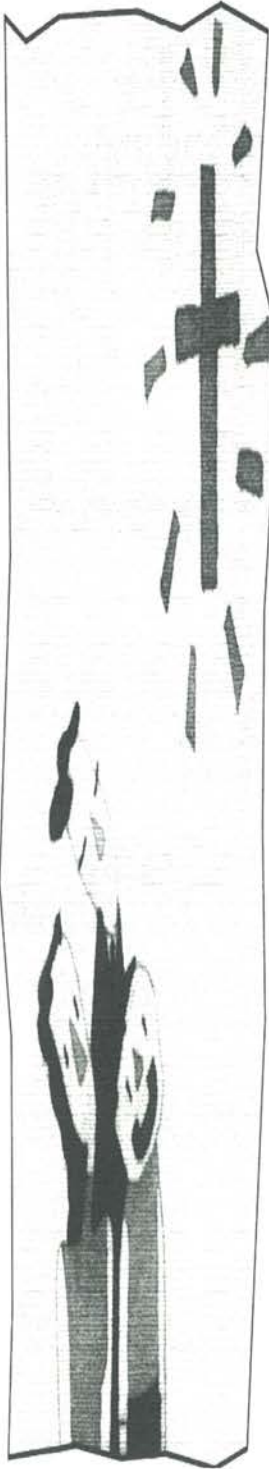
제31회(1998년)
평신도 주일 강론자료



사랑의 마음으로

『 함께
가요,
우리 』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서른 한 번째 평신도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태어난 지 서른 돌이 되는 해여서, 평신도 주일을 지내는 우리의 감회를 더욱 새롭게 합니다.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중앙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이 땅의 복음화와 평신도 사도직의 능동적인 수행을 위해 첫발을 내디뎠던 30년 전의 그 감격을 되새기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도직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합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와 더불어 2000년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평협도 교회의 대회년 준비와 발맞추어 지난해 평신도 주일을 기해 회년의 정신을 우리 평신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구현하고자 '제자리 찾기'를 전개해 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아 이 '제자리 찾기'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반성하면서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온 2000년 대회년을 참으로 뜻있게 준비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금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보편 교회는 2000년 대회년을 직접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인 1999년을 '성부의 해'로 정해, 모든 "신앙인들이 시야를 넓혀 그리스도의 전망 안에서,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전망 안에서 사물을 보게 하려는 것"(제삼천년기 49항)이 그 목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의 눈으로 만사를 바라보고 그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특별히 "이 해에는 사랑의 덕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제삼천년기 50항)고 밝히십니다.

우리는 보편 교회와 교황 성하의 이같은 뜻을 따라 이번 평신도 주일을 계기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느님과 이웃을 바라보며 2000년 대회년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했으면 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하느님과 이웃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야말로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이자 또한 구세주 친히 당신의 말씀과 행적으로써, 삶과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승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해야 합니다. 실상 우리 인간과 세상을 위한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하느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은 빈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를 내부로부터 변화시키는 하느님의 사랑에 젖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기심과 가식과 편견의 너울을 벗어버리고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마음과 하느님의 눈으로 이웃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평신도 주일을 계기로, 다가오는 성부의 해를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한 철저한 회개로부터 시작합시다. 진정한 회개는 단지 죄에서 벗어나 악을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선을 지향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고해성사가 바로 가장 깊은 의미에서 이 두 가지 측면과 관련된다면서 그 의미를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십니다. (제삼천년기 50항 참조) 따라서 성부의 해를 앞두고 우리 모두 화해와 참회의 성사인 고해성사를 통해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합시다. 나아가 화해와 용서의 정신이 우리 사회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가정과 이웃에서 화해와 용서의 모범을 보입니다.

참다운 회개의 표시는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우리의 도움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관심과 사랑을 쏟아야 할 이웃이 아니겠습니까. 가난하고 버림받은 이, 일자리를 잃고 실의에 빠진 이, 사랑에 메말라 방황하는 이, 가정의 파탄으로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 선과 진리에 목말라 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주위를 조금만 관심있게 돌아본다면, 우리는 도처에서 사랑의 손길을 바라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다가가 형제적 나눔을 실천합시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진정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가진 것을 서로 조금씩 나눈다면, 우리의 작은 나눔이 그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하느님이 사랑이심을 드러낸

“
우리를 내부로부터
변화시키는
하느님의 사랑에
젖어있을 때 하
느님의 마음과
하느님의 눈으로
이웃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

다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 바치는 더없이 값진 찬미의 제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선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찬미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370만 우리 평신도들의 삶이 이렇게 펼쳐질 때에 우리는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새 하늘 새 땅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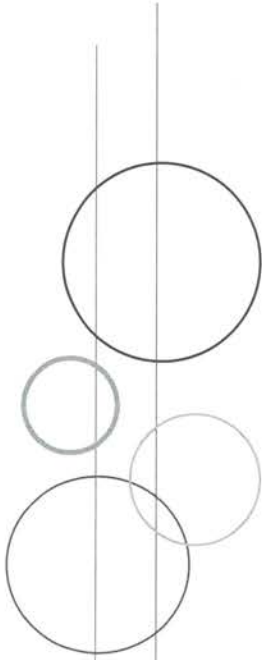
우리 한국의 주교님들은 지난 10월 주교회의 가을 정기총회를 마치면서 한국 천주교회의 2000년 대회년 맞

이 운동으로 '새날 새삶' 운동을 제창하셨습니다. '새날새삶' 운동이란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둬나 사랑의 눈으로 만사(萬事)를 바라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만사를 대하자는 운동입니다. 주교님들이 앞장서 펼치시는 '새날 새삶 운동'에 정성과 열정을 다해 동참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바라보며 2000년 대회년을 준비하자는 우리의 결의를 굳힙시다. 그리고 우리의 결의를 행동으로 증거합시다. 그러할 때에 2000년 대회년은 참으로 가슴 벅찬 기쁨의 해로, 주님 은총의 해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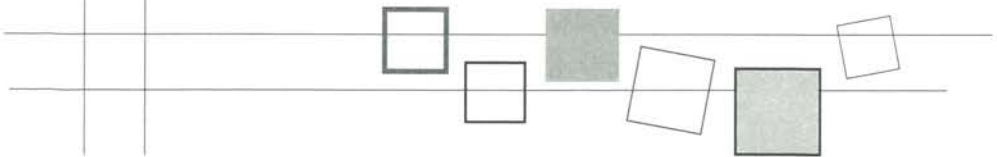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
 화해와 참회의
 성사인 고해성
 사를 통해 아버
 지 하나님의 사
 랑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
 자.
 ”





교구평협 회장
및
단체장
새해인사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드시는 하느님

새해들어 경제가 다소 안정되면서 국가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는 등 올해는 경기가 회복되리라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97년 11월 국가부도 사태 직전의 최악의 궁지까지 내몰렸던 우리 경제가 이제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지난 해 너 나 할것 없이 고통스럽고 암울한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이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견책하시고 아들로 여기시는 자에게 매를 드신다.』(히브 12,6)는 말씀처럼 하느님이 우리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IMF관리체제에 들어가기 전 우리 사회는 국민의 과소비와 기업의 방만한 경영, 부도덕한 정치 등으로 병들어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이에 경종을 울리고 불행한 사태를 겪게 함으로써 우리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에게 지난 삶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주심은 당신의 참 아들로 여기심이며, 그 견책이 당장은 괴롭지만 우리에게 이익을 주고 마침내 평화의 열매를 맺어 올바른 길로 이끄시려는 뜻을 또한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IMF체제를 겪으면서 사회 전반에 부풀려져 있던 거품들을 제거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으며, 우리의 생각과 태도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불행한 사태에 던져놓고 방관하시지만은 않으셨습니다. 우리 천주교회를 비롯한 여러 종교 단체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각종 민간단체 등에서 실업자와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발벗고 나서게 하였고, 우리 국민이 다시한번 힘을 모으게 하시면서 사회적 고통을 함께 나누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깊고 따뜻한 사랑을 생각할 때 자녀된 우리들은 더욱 최선을 다해 그분의 뜻에 맞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기업의 구조 조정이 진행중이고,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의 짐을 나누어질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겠습니다.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찬미 예수님!

바빠 돌아간 1998년 한 해였습니다. 그것은 외부적인 여건도 있었지만, 2000년 대회를 준비하면서 행여 우리 탓으로 일에 차질이 생길까 봐 노심초사했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그 고삐는 늦추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금년은 더 어려운 한 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이 사실은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안 때부터 우리는 그 감사에 몸둘 바를 몰라 하며, 이 진리를 동포들에게 알려야겠다고 교회를 중심으로 적지 않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때로는 기쁨을, 때로는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그 모두를 하느님께 봉헌하여 그분을 찬미하는 의식(意識)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하라고 하십니다. 사랑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성의와 분위기와 기술. 이를 위해 대구에서는 교구시노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명(黎明)이 조금씩 드러나는 느낌입니다. “성부의 해”인 금년에 이 여명의 서광이 온누리에 비칠 것을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2000년 대희년을 향하여



사랑으로 오신 성부, 성자, 성령은 찬미 받으소서.
저희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주시는 주교님과 신부님을 모시고
곳은 일 찾아 나서시는 수녀님들과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사목회장과 사목위원님,
교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교구 단체장님과
교구 모든 신자들에게
기묘년 새해를 여는 지금 깊이 고개 숙여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올립니다.
암담했던 1998년은 뒤돌아 보기조차 싫으나
긴 장마와 수해를 이겨내시고, 어려운 경제 여건 중에서도 본당을
잘 이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1999년 성부의 해를 맞아 보다 큰 성부의 사랑 속에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길 기원합니다.
저희 평협도 새날, 새삶 운동 실천에 앞장서
우리 주위에 가장 미소한 이들을 섬기고
나눔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성년의 마지막 해를 잘 준비하여
2000년 대희년의 은총을 듬뿍 받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평협이 할 일은 무엇인가

평협이 존재하는 목적이 이론적으로는 교회와 한국 순교자의 정신을 기리는데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 사명은 가정과 사회복음화에 이바지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으로 교구장님의 사목방침에 따라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사도직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난 해에는 교구장님의 사목방침에 따라 '사회정의 실천의 해'를 살면서 우리 교회는 사회적 가르침은 무엇이며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은 어떻게 관련이 되어있으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정하권 문시놀님을 모시고 4개 지구를 순회하며 특강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랑 실천의 해'로 가족이 함께 기도하기, 이웃돕기,公所돕기, 복지시설 방문·돕기 등은 우리 평신도 단체들이 활동할 덕목임을 알아 실정에 맞게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잘 극복하는 데 우리 평신도들이 솔선해서 모범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랑 실천도 각자의 위치를 인식하고 계층 간의 이견과 공동체간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조정해나가는데 마음을 씀으로써 2000년 대희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합시다.



하얀 종이위에 꿈을

새해는 은총으로 복을 누리는 가정의해이기를 기도합니다.

1998년, 우리 주위의 어려운 가정들이 실직·해직·퇴직·면직 등의 뼈저린 단어로 이름 붙은, 아픔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그런 바람에 매리지 엔카운터 주말도 참가자 수가 줄어들어 2박 3일간 행하는 ME주말의 수를 축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은 복음화와 함께 무너지려는 가정을 쇠신하고, 어려울수록 더욱 행복하고 아름답게 부부와 자녀 가족들이 나누고 기도하고 섬기려는 운동이므로 더욱 세차게 밀고 나가야 할 소명이 우리들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새해는 우리의 꿈, 이를 수 없을지도모를 그 꿈을 돈키호테처럼 저돌적으로 달려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꿈나무이듯이,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꿈나무이듯이, 우리는 꿈나무를 돌보는 동안 꿈이 소진될 수 없습니다. 크면 클수록 좋고, 작아도 작은 대로 훌륭한 우리의 꿈을 정말 새해에는 소담스럽게 나누고 싶습니다.

ME가족들은 더 많은 ME가족을 향한 꿈을 새해에는 하얀 1999년 종이 위에 그림을 은총으로 그려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대희년을 향한 은총의 꿈나무를 가꿀 것입니다.

평협 가족 모든 이에게 주님의 평화가 내리소서.

강수길 그레고리오·오미호 엘리사벳 부부
배영무 라우렌시오 신부



가톨릭여성인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자.

2000년 대희년 준비의 마지막 해인 '성부의 해'가 열렸다. 전세계 사람들이 가슴 설레이며 맞이하고 있는 새로운 천년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으로서 이 새해를 맞이한다.

지난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역사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고 IMF체제 2년 동안 수많은 실직자가 거리로 내몰리는 아픔을 겪었다.

한 나라의 흥망의 원인은 여러 가지이겠지만 그 하나는 여성들의 삶의 태도에 있다고 생각된다. 주부가 건전한 생각으로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그 가정이 건전할 것이고 또한 그 국가는 흥할 것이다. 그만큼 여성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한 것이다.

우리 가톨릭여성연합회는 분명 가톨릭 신자 여성의 모임이다. 여성이며 가톨릭신자인 우리는 그 책임이 두 배가 된다고 생각된다. 이 한 해를 우리는 참다운 신자로서 정성을 다해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서로 돕고 함께하는 살아가기를 다짐한다.

부패하는 곳에 소금 역할을 하고 어두운 곳에서는 빛이 되어야겠다. 그리하여 작은 힘이지만 모두 모여서 큰 힘이 되어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열고, 그리고 즐거운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리라고 다짐한다.



치유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1999년은 己卯年으로서 토끼의 해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한국은 마치 한 마리의 토끼 모양으로 항상 바쁘고 뛰어갈 수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듯하며, 최근 일기예보 때 마다 우리 나라 지형이 동북 아세아 대륙에서 태평양을 향하여 우뚝 서 있는 한마리 토끼모양을 하고 있는 듯 하며, 지난 해의 IMF한파를 훌쩍 뛰어 넘어 가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곤 합니다. 토끼는 옛날부터 영리하고 민첩하며 가파른 산등성을 잘 뛰어 올라갈 수 있는 특수적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중고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토끼몰이를 할 때면 산등성이에 그물을 치고 친구들과 산 아래서부터 산등성을 향하여 토끼몰이를 하면 토끼는 내려가지 못하고 무조건 앞만 보고 산등성을 향해 도망치다가 그물에 걸려들게 됩니다. 즉, 앞만 보고 전력을 하는 동물입니다.

금년에는 토끼의 해로써 바로 다가오는 2000년 대희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토끼의 지혜로움과 민첩성을 가지고 앞만보고 달려가는 근면성과 성실성과 같이 우리도 대희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가톨릭 의사협회는 창립된 지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전국 8개 가톨릭의사협회 지구(서울·인천·대전·전주·광주·대구·부산·제주)에서 매년 각 지구협회 회원들께서 바쁜 시간을 절약하여 어려운 환경에서 소외받고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돌보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가톨릭의사협회 회원이 해야 할 일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 소외되고 고립되어 있는 어려운 환자들을 위하여 예년과 같이 사랑의 인술을 실천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게 남의 고통을 분담하여,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 회원 자신의 마음 안에 재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가톨릭병원협회가 주관하고 본 협회의 후원으로 해외 선교 및 진료 활동을 하여 온 바, 남미·아프리카·몽고 등에 해외 선교 진료활동을 그 지역 주민들에게 봉사과 희생을 실천하며 좋은 성과를 얻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해외진료 및 선교 사업에 적극 후원할 예정입니다.

금년 사순절에는 전국 가톨릭의사협회 회원들이 광주 피정의 집에 모여 피정 겸 총회를 할 예정입니다. 회원들의 끈끈한 친교와 의사로서의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각자 회원 마음 안에 재현하기 위한 피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세계 가톨릭의사협회 학술대회 및 총회를 바로 서울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03위 성인을 모시고 수많은 순교자들의 희생으로 이 땅에 천주교회가 뿌리박게 된 우리나라에서 세계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금년에는 본 대회 준비를 위하여 만전을 다할 각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한국인의 순교정신과 의료와 거룩한 순교자 및 성인들의 치적을 참가자들에게 널리 알리고자하며 홍보차원에서라도 착실히 기획할 각오입니다.

회원 여러분, 금년에는 건강하시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히 내려 주시길 기도 드립니다.



2000년 대희년을 바라보며

2000년 대희년을 준비하는 두 번째 해였던 “성령의 해”를 대과 없이 보낼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은혜였다고 믿습니다. 이제 막 대희년 준비 마지막 해인 “성부의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제삼천년기」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탄생 후 2000년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온 인류를 위해서도 특별한 대희년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 즉 육화되심으로 시작된 “은총의 해”를 지금 여기에 구현하는 것이기에 2000년 대희년을 준비하고 있는 이 기간은 우리의 신앙을 깊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하고 매력적이고 호소력 있게 복음의 메시지를 세상에 선포하여 우리가 사는 공동체를 곧 가정, 이웃, 일터 그리고 사회 전체의 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시기임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담화에서 새로운 복음화의 일환인 “새날 새삶” 운동을 펼치면서 피력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꾸르실료 운동은 특별히 지난 4-5년전 부터 우리들 스스로 우리의 신원을 재확인하려 했고 그래서 보다 하느님께 다가가기를 갈망했던 시기였습니다. 꾸르실료 운동은 오로지 사회 현실에 대한 깊은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당시 꾸르실료 운동의 창시자들이 인식한 1940년대의 현실은 극도의 무질서와 비그리스도적, 탈그리스도적 환경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만들었다고 믿었고 이러한 비그리스도적 사회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여 환경을 변화시킬 척추를 구성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처방했고(방법) 지향했고(목적) 정의하려(본질) 노력했습니다. 꾸르실료 운동은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 즉 회심(Metanoia)의 삶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크리스찬으로서의 기본을 살고 함께 나누는 삶 즉 그리스도 신비체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꾸르실리스따들은 이제 겸허하게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성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꾸르실료를 통해 우리 모든 꾸르실리스따들 안에 육화 되셨음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의 진솔한 삶을 그분께 다시 봉헌할 수 있는 꾸르실료 운동이 되도록 다짐해 봅니다.



대희년을 준비하는 평신도의 삶

대망의 새해 1999년 '성부의 해'를 맞이하여 전국에 계시는 교우들에게 인사드립니다. 하느님의 평화 속에 영육간에 건강하시며 가정에 성모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교우 여러분! 2천년 대희년이 일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지만 더욱 철저히 누룩의 역할을 하도록 재다짐합니다.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남다른 열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기도를 대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믿는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뜨거운 묵주기도 운동을 일으켜야겠습니다. 다시 말해 좀더 체계적인 실천적 훈련과 조직의 내실화로 인해 선교 에너지원으로 거듭나서 영적봉사에 전적으로 투신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느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보시려는 선교사업에 몰두해야 합니다.

교회의 영적표지인 신심단체와 액션단체가 많이 설립되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 사업에 얼마나 열성적으로 신명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제 대희년을 준비하는 마지막 해에 하느님의 성스런 사업을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평협 회장단과 산하 임원들에게 성모님의 감미로운 은총이 가득 내리시기를 기도합니다.



1998

1999

각 교구평협 및 단체 소식



한국 평협

* 경제살리기 운동 앞장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류덕희)는 지난 1월 20일 360만 모든 평신도들이 힘을 합쳐 경제난 극복에 앞장 설 것을 선언하고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실천지침을 발표하였다.

한국평협은 이날 명동성당에서 열린 [경제난극복을 위한 특별기도회]에서 "구한말 1907년 서상돈(아우 그시티노)회장을 비롯한 평신도들이 중심이 되어 국채보상운동을 벌여 나라살리기에 앞장섰던 자랑스런 역사와 전통

을 가지고 있다."면서 [제2의 국채보상운동]을 벌여나가자고 호소했다.

이날 발표한 선언문에서 "온 국민을 좌절과 고통에 시달리게 한 IMF구제금융하의 경제난 극복은 우리들이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만큼 희생과 절제, 절약정신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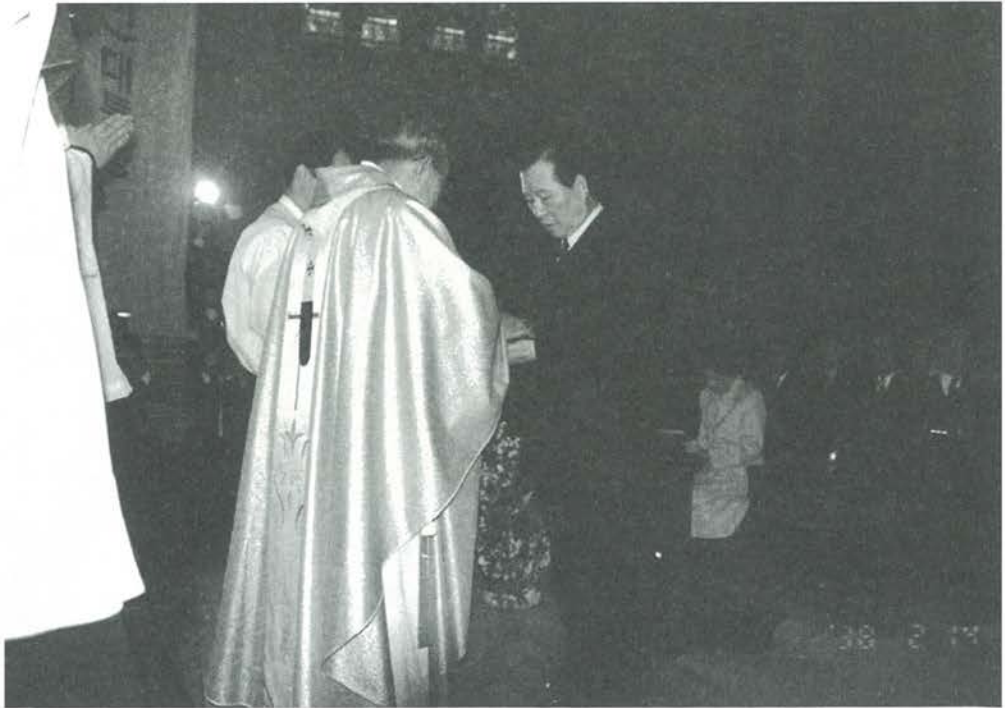
한편 한국평협은 경제난극복을 위하여 본당과 가정, 일터와 학교에서 실천할 27개 생활지침 내용을 선언하였다.

* 「나라와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를 위한 미사」 봉헌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

의회는 1998년 2월 14일 오전 10시 명동대성당에서 김수환 추기경과 주교단, 사제단의 공동집전으로 「나라와 김대중(토마스 모어) 대통령 당선자를 위한 미사」를 봉헌했다.

이날 특별미사에는 류덕희 한국평협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단체장, 본당 총회장, 수도자, 여야 신자 국회의원 등 1천 5백 여명이 참석하여 대통령 당선자의 영육간의 건강을 기원하고 경제난 극복, 겨레의 화합과 통일 등을 기원하였다.

미사 후 열린 축하식에서는 한국평협에서 고통을 통한 영광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선물했으며 명동 본당은 이 나라의



빛이 되어 달라는 의미에서 초를 선물했고,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부는 사회정의건설에 뉴욕이 되어달라는 의미에서 '사회교리서'를 선물하였다.

서울대교구 평협

* 사랑해요 추기경님

「김수환 추기경과 함께 하는 감사미사」

30여 년간 천주교 서울대교구를 이끌어 오시다가 명동성당을 떠나시는 김수환 추기경과 함께 하는 감사 미사가 1998년 6월 22일 오전 11시 명동성당에서 봉헌되었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류덕희)가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평신도 3천여 명이 감사와 애모의 뜻이 담긴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성



당에 모였다. 추기경님께서 직접 집전하신 미사에서 김 추기경님은 “저 뒤에 오시는 분이 더 크신 분”이라고 했던 세자 요한의 말씀을 떠올리게 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남은 여생을 여러분을 위해 목숨까지라도 바치겠다”고 하시며, “새로 오시는 정진석 대주교님은 훌륭한 목자이시니 변함없는 존경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

였다.

미사 후에 이어진 감사의 자리에서 김 추기경님은 신자들로부터 묵주의 기도를 비롯한 한 미사, 영성체, 주교를 위한 기도, 주모경, 화살 기도, 희생 등 영적 예물을 받았다.

그리고 김 추기경, 사제, 신자들이 노사연의 “만남”과 김종환의 “사랑을 위하여” 등 대중가요를 합창했으며, 사회자의 요청으로 김추기경님은 김



정식의 “난 하느님을 사랑해요”를 열창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 정진석 제13대 서울대 교구장 착좌식**

서울대교구장 제13대 교구장에 서임된 정진석(니콜라오) 대주교의 착좌식이 지난 6월 29일 명동대성당에서 서울대교구 사제와 신도를 비롯해 전국 교구장, 타종교 지도자, 주한외교사절, 정·관계 인사



등 1천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정대주교는 강론을 통해 “교구공동체, 한국교회, 분단된 조국과 민족의 화해를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미사가 끝난 뒤 열린 축하식에서는 영적예물패 증정과 김대중 대통령 축하메시지 낭독, 교황대사의 축사 등이 이어졌

다.

*** 제7회 연도경연대회**
제7회 서울대교구 연도경연대회가 지난 11월 29일 명동성당 문화관에서 열렸다.

이날 연도대회에는 각 지구 대표 13개본당 500여명이 참석하여 경연을 하였다. 1위는 12지구(반포본)가 2위는 1지구(명동), 4지구(세검정), 3위는 15지구(목동), 14지구(시흥4동), 4지구(세검정)에서

각각 차지하였다.

*** 제16회 교구장기 테니스 대회**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류덕희)가 주최하는 제16회 교구장기 테니스 대회가 정진석 서울대교구장님을 모시고 각 지구대표 77개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월 3일 효창테니스 코트에서 열렸다.

교구 공동체의 활성화와 본당 간의 친선과 화합을 목적으로 열리는 테니스 대회는 각 지구의 예선을 거친 연령별 대표팀이 참가하여 건전한 스포츠를 통한 화합의 장을 열었다.

이번 대회 우승팀은 60대 용산, 50대 오류동, 40대 반포동, 30대 가톨릭대, 여성부 신림동 팀이고, 2위는 60대



수유1동, 50대 성직자, 40대 오금동, 30대 개포동, 여성부 대치동 팀이, 3위는 60대 세종로.반포, 50대 반포.가톨릭대, 40대 역촌동.대치동, 30대 가톨릭대.둔촌동 팀이 차지했다.

*(주) 한국샤프 이관진 회장(평협 상임고문) 가톨릭대학에서 명예문학박사학위 받아

한국 평협 상임고문이시고 한국 가톨릭 군중후원회 회장 이시며 (주)한국샤프 회장이신 이관진(베드로) 회장이 교회와 사회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지난 9월 11일 가톨릭대학에서 명예문학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이번 명예박사학위 수여는 재계 인사로는 처음이

며 가톨릭대학교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가 수여된 일도 처음이다.

이 날 학위수여식에는 서울대교구 총대리 김옥균 주교, 강우일 가톨릭대학교 총장 주교, 정명조 주교, 최창무 주교, 류덕희 평협회장 등 내외 귀빈과 가족친지 등 3백 여명이 참석,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을 통한 이웃사랑의 실천과 교회와 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이 회장의 학위 수여를 진심으로 축하했다.

이관진 회장은 이날 수여식에서 "교회를 위해, 또 사회를 위해 한 일이 별로 없기에 명예박사 칭호는 너무 과분한 명예"라며 "앞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노력하는 삶을 통해 주어진 명예에 응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우일 총장주교는 "명예박사 학위는 인품과 덕망 등 사회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 존경받을 만한 업적을 이룬 분들에게 드리는 최고의 명예"임을 강조하고 "인간존엄의 대학교육 이념을 표방한 가톨릭대학의 이념에 가장 부합하는 분이기엔 명예박사 학위를 드리게 됐다,"고 강조하였다. 수여식 후 팔레스 호텔에서 내외 참석 귀빈을 모시고 축하연이 이어졌다.

*(1999년도 서울평협 정기총회 개회

서울평협은 지난 1월 31일



가톨릭회관 7층 강당에서 1999년도(제29회)정기총회를 열었다.

본당 총회장, 교구 단체장, 평협 상임위원 등 160여명이 참석하여 지난 98년도 사업실적 보고 및 결산을 승인하고 올해(99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심의했다.

서울평협은 올해 전국 교구가 참여하는 「대회년맞이 평신도대회」를 10월 개최예정이다.

대구대교구 평협

✽ 교구 시노드 제1·2차 총회

지난 97년 11월 30일 시노드 개최미사에 이어 98년 6월 6일 가톨릭교육원 대강당에서 교구 시노드 제1차 총회가 있었다. 이날 교구 시노드 대의원 3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개 분과별로 나누어 각 분과별 3가지 의안에 대한 찬반의

견을 대표자들이 발표하였고, 온 교구민이 함께 생명의 길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이어 제2차 총회가 7월 17일에 있었는데 1차 총회 결과를 토대로 개선된 분과별 제안을 사항을 논의했다.

✽ 평협 연수 및 제 16차 정기총회

10월 31일(토)~11월 1일(일)까지 꾸르실로 교육관에서 80개 본당에 95명(교구 평협 상임위원 포함), 22개 단체에서 23명 등 총 1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평협 연수 및 제 16차 정기총회가 열렸다.

‘본당 사목기구에 대하여’, ‘99년 사목지침과 새날 새삶

운동’, ‘평협임원의 역할과 자세’를 주제로 강의가 있었고, 11월 1일에 있었던 제 16차 정기총회에서는 98년도 사업 및 회계감사 보고, 98년 사업 실적 및 결산승인, 99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승인과 임원선출이 있었으며, 제10대 교구 평협 회장으로 최옥식(바울로) 회장이 선출되었다.

마산교구 평협

✽ 지구별 강연회

1998년도 사목지침 사회정의 실천의 해를 지내며 마산평협에서는 각 지구별로 나누어 강연회를 열었다.

- 강사: 정하권 몬시뇰



- 연제: 대희년과 사회정의 실천
- 마산지구: 9.22 남성동 성당
- 진주지구: 9.24 옥봉동 성당
- 통영지구: 10.20 통영시민문화회관
- 창원지구: 10.22 사파동 성당

- * 교구 여성연합회 실직자 가정 김장나누기 바자회 협조
 - 60세대 배추 6,000포기
 - 무우 1,000개
 - 80세대 쌀 20Kg
- * 1999년 마산평협 연수회 및 정기총회
 - 일시: 1999. 1. 23~24일

- 장소: 창원 가톨릭사회교 육회관
- * 1998년 선교대상 시상식
 - 1999년 1월 24일
- * 사회정의실천 신앙체험 수기공모 시상식
 - 1999년 1월 24일

수원교구 평협

- * 교구평협 임무부여를 위한 파견예식
 - 수원평협(회장 황재용, 지도신부 김영옥)에서는 1998년 3월 21일(토) 17시 30분 교구청 성당에서 임무부여를 위한 파견예식이 있었다.
 - 수원교구 교구장 최덕기 주

교님으로부터 새임원들의 임명장 수여식과 전회장단의 공로패와 감사패 수여도 함께 하였다.

* 레지오 수원 도입 40돌 봉헌식
 1998년 5월 24일(일) 09시 30분 수원실내 체육관에서 '천지의 모후' 레지아 (단장 : 양철화 요셉, 지도신부 : 김영옥 가브리엘) 주관으로 실시된 봉헌식을 6,500여 명의 단원들이 모여 성모 마리아를 총사령관으로 모신 군대임을 재인식, 개인 성화를 바탕으로 민족 복음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성모께 자신들을 봉헌했다.



*** 전국평협 상임위원회 개최**

1998년 제2차 전국평협 (회장 류덕희, 지도신부 박기주) 상임위원회가 6월 13일 (토) -14일(일) 성 라자로마을 마리아 빨리 한국본부에서 개최되었다.



*** 수원교구 여성연합회**

「실직가정을 위한 사랑과 나눔의 아나바다 물 큰 장터」개최 1998년 9월 26일(토)-27일(일) 수원교구 여성연합회에서는 수원교구청에서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고, 물려쓰고의 장터를 열어 실직자 돕기에 앞장섰다. 이날 수입금 32,209,479원 성금 전액을 교구에 전달했다.

1998년 10월 10일 (토) 10시 30분 정자동 주교좌 성당에서 수원교구의 제2대 교구장을 역임하신 김남수 (안젤로) 주교의 사제서품 5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다.

그동안 김남수 주교님께서서는 수원 평협이 자리매김하는데 큰 도움을 주셨고, 103위 한국 순교자 시성식, 수원 가톨릭대학교 설립, 생명존중과 아이 더 낳기 운동등을 열성적으로 펼쳐오셨다.

이에 수원의 자랑인 효행심을 발휘하여 영신의 아버지인 주교님을 신자들이 효성스러운 마음으로 모시기 위해 수원평협이 주축이 되어 사제서품 50주년을 맞는 주교님을 축하해 드렸다.

*** 김남수(안젤로) 주교 사제서품 50주년 기념행사**

한국가톨릭 여성협의회

*** 제24차 정기총회 및 제16차 연수회**

한국가톨릭여성협의회(회장: 박애주)는 1998년 6월 22~24일까지 13개 교구대표 64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교구 연수원에서 제24차 정기총회 및 제16차 연수회를 개최하였다.

‘대회년의 실천은 여성으로부터’와 ‘성령 안에 일치하는 여성’ 주제강의를 듣고 ‘모성성 회복을 위한 제자리 찾기 운동’, ‘실직자와 고통분담’,



‘내 삶 안에서 만나는 하느님’이라는 소주제로 분과토의 및 발표시간을 가졌다.

또한 각 교구별 사업 및 결산보고, 예산 및 사업계획 등을 토의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각 교구 여성대표들의 정보를 교환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 전국 회장단회의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전국 회장단회의가 지난 10월 16일 있었으며 2000년 2월 대회를 맞는 전국단위 전시회를 계획하였다.

* 성물 상설전시장 개관

서울가톨릭미술가회 회원이 직접 만든 성물을 전시하는 상설전시관이 강남에 열었다. 전

시품목은 십자가, 성모상, 회화, 조각, 카드, 상본 등이다.

* 회년맞이 특별 초대전

99년 2월 19~28일까지 서울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회년맞이 특별 초대전이 열린다. 회년을 주제로 한 작품과 십자가, 성모상을 각각 제하여 전시합니다.

한국가톨릭의사협회

* 해외 의료선교 지원 사업

몽골국 의료지원 및 선교 98. 7.21~8.4 김중호 신부외 의료진 10인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총회

1998년 2월 28~ 3월 1일

가지 제29차 꾸르실료 한국협의회총회가 14개 교구의 임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교구에서 개최었다.

* 꾸르실료 아시아 태평양 회의

98년 9월 24~27일까지 제 12차 꾸르실료 아시아 태평양 회의가 호주 브리즈번에서 10개 단체 약 150여명의 대표들이 참가해서 개최되었다.

한국가톨릭 맹인선교협의회

* 맹인 경로잔치

일시: 98. 5. 20

장소: 맹인선교회 지하성당

참석인원: 300명

* 심청이상 시상식

- 효행부문: 양미순(춘천맹인선교회), 이은정(김해)

* 한올회 장학사업

생활 형편이 어려운 맹인 자녀와 맹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 서울9명, 지방 18명



월드와이드 메리지 앤 카운터 한국협의회

* 전국 ME 팀사제모임

몹시도 추운 1999년 1월 11일 장충동 분도회관에서 99년도 전국ME 팀사제모임이 개최되었다.

예년보다 더 많은 신부님께서 참가해 주셔서 갑자기 부자가 된 것 같은 뿌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 아시아 총회에 다녀온 대표팀의 경과보고를 듣고 새 프로그램도 체험하며 열띤 토론을 나누셨다.

부부들이 마련한 신년 하례식에서 큰절 받으시면서 흐뭇한 미소를 보여주시던 신부님들을 보니 큰 후원자를 얻은

듯 든든한 느낌이 든다고 참석한 부부들 모두 이구동성.

며칠째 계속된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각 교구에서 올라와 주신 신부님 고맙습니다. 신부님들의 사랑을 잊지 않고 99년 한해 동안에도 열심히 주님

의 도구로 쓰여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은 그리스도를 찾아서



제15회 가톨릭대상 시상

- ◆ 사랑부문: 故 이내원 씨
- ◆ 문화부문: 심경석 씨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는 제 15 회 (1998년) 가톨릭대상 수상자로 사랑 부문 1명, 문화 부문 1명을 선정·시상하였다.

지난 98년 11월 7일 가톨릭회관 7층 강당에서 김옥균 주교와 심사위원, 수상자 가족, 평협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에는 사랑 부문 대상에 故 이내원씨, 문화 부문 대상에 심경석씨를 각각 시상했으며, 정의 부문 대상은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각 부문별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부상으로 3백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가톨릭대상은 이 땅에심 우리와 함께 살면서 남다른 사랑의 실천과 봉사와 희생에 앞장서며 정의구현과 문화의 창달에 현저히 기여를 한 숨은 공로자 (작은 그리스도)를 찾아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도록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1982년에 제정, 해마다 시상해오고 있다.

제15회 가톨릭 대상 심사는 이관진 회장(전국평협 상임고문, 前 전국평협 회장)을 심사위원장으로 류덕희 회장(전국평협 회장) 외 평협 관계 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엄정한 심사를 하여 결정하였다.



◀ 주교회의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장 김옥균 주교와 가톨릭대상 수상자들, 그리고 평협임원

◆ 사랑 부문 ◆ 故 이내원씨

사천소방서 구조구급 계장인 故 이내원씨(35세)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지리산 수해가 발생하자 긴급 출동하여 경남 하동군 옥종면 덕천강 창존교 하류 5백m 지점에 처박힌 승용차에 갇혀 있던 어린이들을 구하려다 급류에 휩쓸렸다. 이내원씨는 병원으로 옮겼으나 의식불명상

태에 빠졌다. 이내원씨의 가족들은 평소 이내원씨의 뜻을 받아 이씨가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는 '뇌사'에 빠지자 만일의 경우 이씨의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사망적 후 이내원씨의 장기는 너무 손상이 되어 기증할 수 없었고 안구를 두 사람에게 기증하였다.

부산 수산대를 졸업, 소방간부후보 7기로 1993년부터 소방관이 된 이내원씨는 초등학교 교사인 아내 이인선씨와 맞벌이로 절약하며 열심히 생활한, 두아이의 자상한 아버이자, 남편이었다. 평소 자신을 아끼지 않는 이내원씨는 지리산 집중 호우로 조난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구조현장에서 지휘 독려하는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나서 인명을 구하려다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사고를 당한 것이다.

고 이내원씨는 살아서는 생명을 구하고 죽을 땀 빛을 남긴 살신성인의 의인이다.



◆ 고 이내원씨의 부인 이인선씨가 남편을 대신하여 수상하고 있다. 원내는 고 이내원씨

◆ 문화부문 ◆ 심경석 氏

전 신암초등학교(강동구 암사동 소재) 교장으로 정년 퇴임한 심경석씨(65세)는 교직 생활 46년 동안 펴낸 책이 180권. 이들 책 중 일부는 학습교재물과 수필집도 있으나 거의 전부가 아동 소설과 동화책이다. 심경석씨 저서의 어린이 독자는 약 4백만 명에 이른다.

TV와 컴퓨터가 없던 시절 심경석씨는 수업시간에 아이들에게 들려주던 옛날 얘기를 기왕이면 책으로 꾸며보고 싶어 시작한 일이 1백권이 넘는 아동도서를 쓰게 되었다. 심경석씨는 꾸밈없고 티없이 맑은 어린이들의 마음으로 빠져들어 어린이에 대한 사랑을 아낌없이 실천하고 있다.

대전사범학교와 서울대학교 사범대 교육학과를 졸업했지만 중등교사를 마다하고 초등학교

교사를 자원해 어린이들의 동심에 빠져들었다. 1973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거의 매일 원고 지 50장 이상씩 써왔다.

심경석씨의 어린이 사랑은 많은 작품 속에 그대로 나타난다. 심경석씨의 책중 가장 많이 읽힌 '친구여 안녕'은 1987년 서울교대부속초등학교 교장시절 졸업식날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학생이 계기가 된 작품이며, '태양을 사랑한 소녀'는 이혼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던 형제가 보고 싶어 학교로 찾아온 외할머니를 보고 구상한 작품이다. 심경석씨는 이 소설 속에서 아이의 부모를 다시 맺어주는 것으로 안타까움을 달랬다.

심경석씨의 어린이 사랑은 촌지 등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 현실에 참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의 모습으로 남아 어린이 사랑에는 정년이 없음을 말하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꽃마음', '백고양이', '일곱난장이', '학교는 밤마다 이상해', '태양을 사랑한 소녀' 등이 있다.



◀ 문화부문 수상자인 심경석씨가 부인과 함께 수상을 하고 있다.





1. 머리말

류정목(도·농협력분과위원장)

2천년, 대희년은 가까워 오는데 지금 우리의 삶은 불안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불안하고 모든 생명체의 보금자리인 지구 생태계 전체가 불안합니다. 마치 "땅은 메마르고 주민은 모두 찌들어 간다. 들짐승과 공중의 새도 함께 아위어 가고 바다의 고기도 씨가 말라간다."(호세아서 4,3)는 성서의 말씀처럼, 오늘날 밥상 위기, 농업 위기, 환경 생태계 위기로 표현되는 생명위기의 심각성은 갈수록 더해가고 있습니다.

근래 대희년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 안팎에서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생명 공동체 운동, 도·농 협력운동은 바로 이같은 위기에 대한 자성이자 실천적 대안 운동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 복음과 그 은총을 사람들에게 전할 뿐 아니라 현세질서에 복음정신을 침투시켜 현세질서를 완성하는 그것이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5항)

'평신도들의 특별한 사명은 평신도를 통해서만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그 장소와 환경 속에 교회를 현존케하고 활동케하는 그것이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 33항)

오늘날 시대의 징표를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도·농 협력을 통한 우리농촌살리기운동입니다. 이는 도시와 농촌,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손잡고 힘을 합하여 생명가치를 중심으로 밥상살림, 농업 살림, 환경 살림 그리고 창조질서 보전을 위한 도·농 공동체를 결성하고 연대 협력하자는 도·농 공동체 운동입니다.

2. 이념과 원리

1) 도·농 협력운동의 기본 이념과 지향은 모든 가치, 정책, 제도, 생활 양식을 생명에 초점을 맞추어 개편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을 소외, 파괴시키는 물질 중심의 대립, 분열적인 죽음의

문화를 벗어나 모두를 살리고 더불어 사는 살림의 문화, 공생, 순환적인 생명가치의 공동체 회복을 통해 도시와 농촌, 생산자와 소비자, 인간과 인간, 자연과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생명공동체, 바로 하느님 나라를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구현하는 것을 궁극의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자 소비자가 각기 공동체를 올바르게 건설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또 이 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의 가치관과 생활 양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달라지지 않으면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2) 도·농 협력운동은 기본적으로 공동체 운동입니다. 따라서 그 기본 원리는 교회 공동체의 원리인 공동성, 연대성, 보조성의 원리에 따릅니다.

공동성의 원리: 농촌과 도시가 더 이상 불균형 속에 살 것이 아니라 공동목표인 모두의 선익을 위해 헌신하는 것. 모두에게 이익과 보람을 주는 생명 가치의 실현을 도·농 공동체의 공동 목표로 삼는 것.

연대성의 원리: 농촌의 아픔이 도시의 아픔이고, 도시의 기쁨이 농촌의 기쁨이 되도록 하는 것. 도·농의 상호 연대 속에서 아픔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는 것.

보조성의 원리: 농촌생산자는 도시 생활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생명의 양식을 생산하고, 도시 생활자는 농촌생산자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 도시와 농촌이 각기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통해 상호의탁하며 생명공동체를 구현하는 것.

(자선이나 시혜가 아니라)

3. 구체적 역할

“여러 지역에 있어서 농민들이 생산과 판로에 특수한 곤란을 당하고 있으므로 생산과 판매를 증진시키고 필요한 개량과 쇄신을 도입하여 정당한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농민들을 지원해야겠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세계의 사목헌장” 66항)

‘주교단은 농민들의 어려운 처지에 공감하여 우리 농민과 농토 및 농업을 살리는 일에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지원방안의 하나로 가톨릭 농민회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우리 농산물 직매장 설치에 각 교구별로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주교회의 회보 제 81호, 1994. 5. 1. 7쪽)

1) 그간의 경과

1994년 춘계 주교회의 결정으로 시작된 농촌살리기운동은 이제 5년 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교구에서 우리농촌살리기운동 교구본부를 설립하고 전국본부를 중심으로 공조와 연대의 큰 흐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본부는 94년 10월 14일에 창립한 이후 우리농촌학교 7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고, 평신도사도직협의회와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각 본당의 도·농협력분과가 편성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농촌학교를 수료한 도·농협력분과 여러분의 노력으로 도·농 직거래매장을

준비하는 본당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각 본당에서 평신도들이 생활실천운동으로 도·농협-우리농촌살리기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도·농 직거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은 본당 생협이나 상설 매장이 없어, 교구단위 생협(우리농 수도권 생협)을 우선 과도기적으로 만들어 운영해왔으나 이제는 이 운동의 본령인 '먹거리를 통한 도·농간 나눔'을 본당별 주말장터, 상설 직매장, 우리농 생협 등을 통한 도·농 직거래를 시작해야하는 운동의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2) 교구에서 본당으로

우리 교회의 기초단위는 본당입니다. 우리 운동도 수도권 생협도 교구 단위에서 본당 중심으로 개편 전개되어야만 활성화될 것입니다. 즉 이제는, 교육 받고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우리가 본당별로 나서서 우리 농민이 생산한 건강한 먹거리를 먹고, 주변의 교우들이 먹을 수 있는 체계를 가지적으로 만들어 가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시일 내에 이런 일이 완수될 수는 없습니다. 도·농직거래가 전 본당으로 확산되고 각 본당마다 주말장터 뿐만 아니라 상설 직매장이 만들어지고 이를 운영할 책임주체(도·농협력분과, 공동체(우리농 본당 생협)가 생겨나는 것이 2004년까지 10년 시한에 걸쳐 이룩해야 할 사명입니다.

3) 본당단위 도·농협력-우리농촌살리기운동 추진방안

- 본당신부님의 추천으로 이 운동에 관심있는 사람을 교구 단위 도는 전국단위 집중교육에 집단적으로 수료시키고, 수료생을 중심으로 본당 사목회 도·농 협력분과를 구성합니다.
- 본당 신부님과 협의하여 교구 단위 교육(농촌학교) 이수자와 도·농협력분과, 사목위원, 구역 반장 중심의 본당 단위 교육을 교구 본부 및 전국 본부와 협력하여 실시합니다.
- 본당 신부님과 협의하여 전 본당 신자교육 실시 후 생활 공동체나 생활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가능하고 안전한 품목부터 공급해 봅니다. 이 경우 본당 공동체와 별개의 조직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전 신자를 규합해야 합니다.(조합원 신자와 비조합원 신자간 배타성이 생기지 않도록)
- 본당이나 지구 단위에서 가능한 공간에 상설 농산물 직매장을 설치 운영합니다. 이 때 모든 물품은 가톨릭 농민회 생산자위원회와 교구 본부가 공동운영하는 물류센터에서 공급받습니다. 그래야 가격 및 품질인증이나 상표 및 포장지를 통일할 수 있습니다. 본당마다 제작기 물품공급선을 갖게 된다면 가격과 품질에 혼선을 초래하게 되어 운동원칙의 체계를 이룰 수 없습니다.
- 농산물 매장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요일을 정하여 농산물 장터를 운영합니다. 우선 도·농협력분과 중심으로 교구본부의 협조를 구하여 주말장터부터 시작합니다. 농산물을 취급하고 판매하는 요령을 일정 정도 숙달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주려있는 일반 신자들도 '먹는 행위' 그 자체로 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 구역이나 반 모임이 생활 공동체의 기본 자리입니다. 밥상을 중심에 놓고 한 사람 한 가정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명실공히 생활공동체가 되도록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매개로 말씀과 밥을 나누는 형제애를 구체화, 2000년대 복음화된 소공동체 활성화(6단계 구체화)의 소재로 삼습니다.

* 예수님도 먹는 것(잔치)을 중요시 - 공생활의 시작(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과 끝(최후의 만찬). 영성체.

4. 몇 가지 원칙

지금까지 많은 본당에서 농촌도 돕고 어려운 교회살림(특히 성전건립기금 조성 등)도 돕는다는 목적으로 크고 작은 규모의 농산물 직거래를 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성전건립이 끝난 이후에도 농산물 판매를 교회 내 특징 단체가 지속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한 본당에서 여러 개의 단체가 제각기 올바른 목적 의식도 없이 경쟁적으로 하는 곳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직거래의 경우는 대부분 농촌·농민·농업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단체의 기금 확보 이상의 목적을 갖지 못할 뿐 아니라 이윤도 비교적 높게 책정된 경우가 많아

도·농직거래 본래의 순수성이 퇴색해 버린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교회의 도·농협력, 도·농직거래 운동 즉,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이 장사를 하되 장사가 아니고, 거래를 하되 거래가 아닌, 사람을 살리고 도시와 농촌을 함께 살리는 그리스도적 생명운동, 공동체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원칙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일꾼 양성과 신자 교육이 우선되어야 합니다.(목적은 명백히 공유하자는 것)

백화점에 가서 고가품의 물건을 살 때는 선뜻 거금을 내는 주부들도 이상하게 몇 푼 안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만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그도 과대 선전과 고급



포장으로 얼룩진 농산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는 어리석은 민감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쨌든 어느 누구도 먹지 않고는 살 수도,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먹거리는 사실 단순한 상품가치 이상의 살림의 가치, 생명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먹거리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야말로 올바른 정신, 변질되지 않는 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도·농협력은 결국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담당할 일꾼들을 농촌 문제를 올바르게 꿰뚫어보고 참된 신앙인의 자세로 투신할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참된 일꾼 없이 매장부터 개설해보자는 것은 성급한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구나 본당 단위 교육을 우선하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비자들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하기보다는 밥과 농촌을 살린다는 목적성을 명백히 공유하지는 것입니다.

둘째, 교회의 공적인 조직체계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본당 신부님의 추천으로 교구 본부와 전국본부에 의해서 양성된 일꾼들을 중심으로 본당 조직체계가 구성되고 본당 신부님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교육받은 일꾼들을 중심으로 본당 사목협의회 내에 전담분과(도·농협력분과)를 신설하거나 전담단체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러한 본당내 조직체계는 교구 본부 나아가 전국본부로 연결되는 한국교회의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운동의 기본적 단위조직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지구 또는 본당 관할구역에 따른 직매장(또는 생협) 구역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직매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본이 필요하고, 자본 출자를 위한 생활협동조합 형태의 회원을 모집하고 회비를 받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 타지역까지 무리하게 회원을 모집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사러오는 것은 관계 없지만 회원을 모집할 때에는 지구 또는 본당 관할구역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치 교적을 본당에 두고 경우에 따라서는 타본당에 가서 미사를 드릴 수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농 수도권생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출자한 사람이 교구 전역에 퍼져있는데, 본당 직매장 설치나 본당 생협설립 때에는 즉시 그 관할 구역내 조합원 및 출자금은 모두 분할하여 본당으로 되돌려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생협은 해체하고 교구 생협위원회(본당생협 대표자회의)가 될 것입니다.

배달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이기적이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실사회에서 이 운동정신에 입각한 본당 직매장(생활공동체, 생협)은 전화 한 통화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도시 생활자들의 타성화된 생활양식을 공동체적 생활양식으로 바꾸게 하는 깨달음의 장이어야 합니다.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는 하느님과 자연과 농민의 수고와 땀으로 한데 어우러진 소중한 생명가치임을 도시 생활자들이 깨닫고 그것을 얻기 위해 나 또한 수고해야 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주부의 모습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교구본부는 물류센터를 통해 확보된 물품을 각 본당까지만 배송하게 됩니다.

물품 공급을 가톨릭농민회와 교구본부가 공동 운영하는 교구 물류센터로 일원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물품 선정 및 가격 결정, 품질 인증, 상표 및 포장지 관리, 이를 통한 생산 지원금 마련, 생산자 관리 및 연계 등의 업무가 효율화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계절 상품에 따라 직접산지거래를 할 수 있으나 일상적인 물품공급은 일원화해야 혼선을 막고 원칙과 체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산지와 자매 결연이나 교류 프로그램은 본당별로 가능합니다.

여섯째, 철저한 감사를 받고 발생한 이윤은 공동선을 위해 용되어야 합니다.

가까운 친구일수록 금전거래는 명확히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니 만큼 교구 본부가 정해진 원칙과 지침에 따라 본당 신부님이 임명한 감사에 의해 철저한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적정가격을 받고 발생한 이윤을 교회 정신에 맞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생활공동체(생협) 교육이나 환경운동, 농촌생산자 지원금, 사회복지기금 등의 용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본당 사정에 따라 본당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윤보다는 어디까지나 농촌살리기라는 목적을 우선시해야 하겠습니다.

일곱째, 가장 중요한 것인데, 산지 방문이나 일손돕기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반드시, 자주 농촌생산자와 도시 생활자의 인간적 만남과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단순한 농산물거래만으로는 이 운동이 뿌리내릴 수도 없으며, 의미도 없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일하고 대화하는 속에서 상호이해를 높이고 삶을 나누는 속에 신뢰가 쌓입니다. 농촌 생산자가 농산물을 생산할 때 그걸 먹을 도시 생활자의 얼굴을 떠올리며 정성을 다하고, 도시 생활자가 농산물을 먹을 때 그걸 생산한 농촌 생산자의 얼굴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시간을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는 몰라도 밥상을 살리고 모두를 살리고 모두 더불어 살기 위해 가지 않으면 안 될 길입니다. 생명이신 하느님의 새하늘 새땅을 여는 부르심입니다. 2천년 대희년을 준비하는 일이고 하느님 보시기 좋으시도록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구현시키는 일입니다.

이미 여러 곳에서 실천적 사례를 속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둘이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노라(마태오 18,20)' 하셨으니 기도하고 실천하는 만큼 주께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농촌을 잃으면 곧 우리는 고향을 잃습니다. 농촌이 망하면 우리 자신이 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농민들의 아픔을 우리들의 아픔과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 평협주관 '나라를 위한 특별기도모임' (93. 12. 12) 김수환 추기경님 강론 중에서 -



하느님의 오묘한 창조 진리 깨달아

← 류덕희(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지난해 내게 가장 뜻 깊었던 일 중 하나는 민족화해위원회의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한 일이다. 처음 방북길에 오른 것은 지난해 4월 말, 북한의 실상을 조금이라도 파악하기 위해 중국에서 신의주를 거쳐 기차로 북한을 들어가려고 시도했지만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5월 중순 2차 방북길에 오르게 되었다. 중국 대련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간 7박 8일의 일정동안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서도 북한의 실상을 어느정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북의 동포를 직접 만나면서 체제와 이념이 다른 데서 왔던 불안한 마음이 많이 해소됐다.

개발의 폐해가 없는 북녘의 산하는 옛 우리의 고향산천과 다를 것이 없었지만 겉으로 보이는 북한은 많이 낙후돼 있었다. 평양시내는 고층 아파트와 대형건물들이 잘 배치되어 정돈되어 있었으나 건물들은 칠을 한 지 오래돼 보였고, 시내에 차량도 적어 조용한 느낌이었다. 또한 원산같은 도시는 규모도 적을뿐 아니라 색 바랜 건물들과 사람들의 모습이 활기가 없어 보였다. 식량이 부족한 것 못지않게 에너지의 부족으로 공장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음을 어렵지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

평양에서 원산을 거쳐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는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 수단을 볼 수가 없었다. 금강산을 넘어 내금강까지 약 32km라는 이정표가 있었고, 포장도 되어 있었지만 차가 다니지 않아 사람들은 80리가 넘는 높은 산길을 걸어다니고 있었다. 들판에는 오래전 우리 농촌에서 모내기하던 모습처럼 사람들이 한 줄로 늘어서 모내기에 열심이었다. 논에는 물이 있었지만 산에

일궈주는 밭은 메말라 보여 곡식이 잘 될까 싶었는데 밭에 심어놓은 것이라고는 옥수수가 전부인 듯했다. 또한 몇몇 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이 소나무 몇 그루만 서있는 민둥산이어서 가뭄이나 홍수의 영향을 쉽게 받을 것 같았다. 북의 산천은 6·25 직후의 남한과 비슷했지만 농촌은 연립 형태로 가옥이 구획화되어 있고, 가축들도 눈에 띄지 않아 예전 우리 시골에서 느낄 수 있었던 푸근하고 아기자기한 모습을 찾기 힘들었다.

북한의 풍경을 보고 있자니 새삼 서울에서 수원으로 피난가서 종합학교를 다니던 시절이 떠올랐다. 토요일이면 시골집에 가기 위해, 힘들게 얻어탄 콩나물 시루같은 트럭에서 내려서도 10km 가 넘는 길을 뛰거나 걸어야했던 기억이며, 당시의 수원이 지금은 엄청나게 변화한 도시가 된 것을 떠올리며 남북의 변화정도에 큰 차이를 느꼈다.

그러나 깨끗한 금강산 계곡의 물을 보는 순간, 사먹던 생수를 쏟아버리고 그 병에 계곡 물을 담아 먹었을 정도로 그 자체의 아름다움이 훼손되지 않은 금강산을 보면서 또다른 시각에서 북한을 바라보게 되었다.

평소 다리에 통증이 있어서 오래 걷는 것이 힘들었으나, 당시만해도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일이기에 지팡이까지 동원해서 만물상 관망대인 천선대는 물론 삼일포, 구룡폭포, 상팔담까지 돌아보았다. 상팔담에서 내려다본 계곡 바닥의 하얀 화강암과 그 빛깔을 고스란히 드러내놓고 있는 맑고 투명한 비취색 물의 조화는 과히 천하일품이었다. 그 절경에 흠뻑 빠져 여덟 개의 용소(龍沼)를 내려다보고 있자니 선녀들이 노닐고 용이 승천했다는 전설이 과장된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삼일포에서 바라본, 산과 어우러진 호수와 동해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풍경은 혼자 감상하기에는 안타까울 정도였다. 금강산 관광중에 안내원의 설명을 통하여 전설이나 유래를 들으며 보는 각도에 따라 여러 모양으로 형상화되는 바위들을 보면서 하느님의 창조의 진리는 참으로 오묘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금강산호텔에서의 에피소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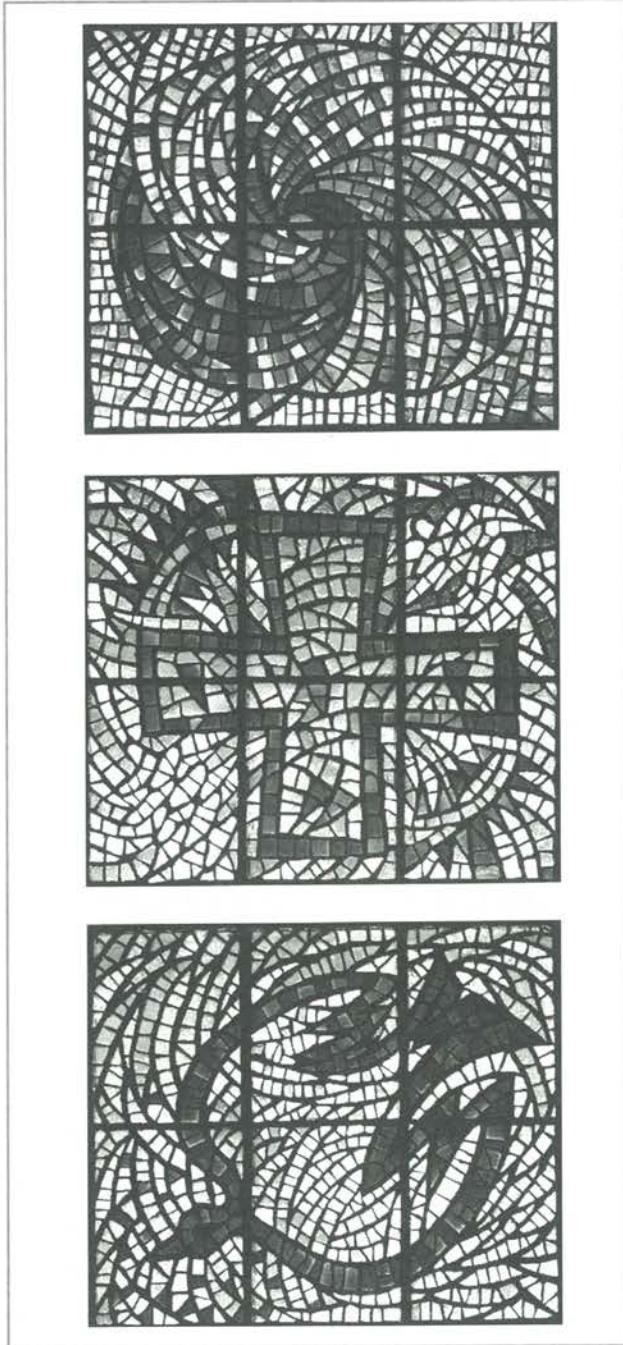
아침 미사후 갑자기 북의 형제들이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해서 호텔 별실에 내려가니 케익을 비롯한 여러 음식과 술로 내 환갑상을 차려놓고 있었다. 필자는 주민등록 상의 생일이 실제와 달라 전혀 관심도 없었고, 이미 97년 봄에 동갑내기 친구들과 환갑여행까지 다녀온 터라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아무튼 금강산에서 환갑을 지낸 사람은 내가 처음이지 않았을까 싶다.

비록 산업은 발달하지 못했지만 옛모습 그대로 자연을 간직하고 있는 북한땅을 보면서 남한의 산업시설과 북의 자연을 잘 조화시켜 경쟁력 있는 나라로 키울 수 있는 통일의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원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비록 이념의 차이가 있더라도 북의 형제들에게 사랑나눔과 통일을 대비한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될 것이다. 제한적인 교류나마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실천해 나갈 때 분단의 벽은 조금씩 허물어질 것이고, 민족의 화해와 일치가 이루어져 통일을 앞당길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000년 대희년과 성부의 해



교회는 지금 2000년 대희년을 준비하는 마지막 해인 '성부의 해'를 지내고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교서 <제삼천년기>에서 성부의 해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신앙인들이 시야를 넓혀 그리스도의 전망 안에서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전망 안에서 사물을 보게 하려는 것"(49항)이라고 밝혔다. 말하자면 하느님 아버지의 눈으로 만사를 바라보고 그에 합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의 전망 안에서 사물을 보기 위해서는 하느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 예수의 하느님은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느님이다. 우리가 매일 같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로 그런 분이시다. 아버지는 누구이신가. 우리를 낳아주시는 '생명의 근원' 이시다. 아버지가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우리를 낳아 주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의 하느님은 단지 생명을 낳아 주시는 것으로 그치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길, 곧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헤매일 때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 자녀들이 다시 당신 품으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느님이시다. 성서에 나오는 '잃었던 아들'의 비유(루가 15, 11-32)는 아버지 하느님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설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성부의 해는 특별히 신앙인들이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새롭게 발견하는 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느님은 사랑이심을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 속에서 체험하는 가운데 하느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 자신이 사랑으로 변화되도록 노력하는 해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부의 해에 우리 모든 신자들의 삶은 사랑이신 "아버지의 집을 향한 큰 순례 여정"(제삼천년기 49항)과도 같으며,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 반성하고 하느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제삼천년기 50항).

그런데 회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죄에서 벗어나는 '소극적'인 측면과 선을 택해 실천하는 '적극적'인 측면이 그것이다. 회개는 단지 죄에 물들었던 옛 생활을 청산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회개의 기쁨은 선행, 곧 사랑의 실천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도록 회개한 인간을 부추긴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이중적인 측면이다. 교황 교서 <제삼천년기>는 이런 의미에서 고해성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이 성부의 해에 교회가 고해성사를 강도있게 거행하도록 격려하고 있다(50항).

그러므로 성부의 해를 지내면서 신자들은 먼저 고해성사를 자주 봄으로써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잘못된 옛 생활을 청산하는 진정한 회개의 길을 시작하고, 아울러 적극적인 이웃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회개의 삶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나아가 사랑이신 하느님을 이웃에 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이중 계명, 곧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 사랑은 바로 구체적인 이웃 사랑을 통해서 입증되기 때문이다.

많은 교구들은 성부의 해 교구장 사목교서를 통해서 회심운동을 강조하면서 고해성사를 자주 볼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신자들이 능동적으로 고해성사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적절한 사목적 배려가 요청된다. 신자들이 고해성사를 부담으로 느끼지 않도록 고해성사의 의미와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배려하고 지도하는 일과 함께 고해성사를 잘 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수원교구 등 일부 교구에서 상설 고해소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또 모처럼 성사를 보러 온 신자들이 고해사제로 인해 오히려 더욱 큰 상처를 입지 않도록 사목자들 편에서의 각별한 주의도 요망된다. 고해사제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성사를 보는 신자들의 줄의 길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현실은 고해사제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회개의 구체적인 표시인 사랑의 실천, 특별히 가난하고 버림받은 이들을 위한 우선적인 배려에 대해서도 이 성부의 해에 특별히 관심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교회는 지난해부터 실직자 노숙자 돕기 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따뜻한 사랑의 나눔은 올 한 해에도 지속적으로 전개돼야 할 것이다. 아직도 식량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한동포들과의 나눔 운동도 체제와 이념의 차이를 넘어 인도주의 차원에서 계속돼야 하며, 소년소녀 가장들과 불우 노인들, 도시화의 그늘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도시 빈민들과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등에

도 관심을 기울이는 일이 필요하다.

대회를 뜻있게 맞이하기 위해 성부의 해에 요청되는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 사회에 생명과 사랑의 문화가 꽃피도록 하는 일이다. 세속주의와 이기주의, 경쟁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이 사회에 참다운 사랑과 생명의 가치를 일깨우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전체를 복음의 정신으로 새로이 변화시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신자 개개인이나 교회 공동체 차원의 노력은 물론이고,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선의의 모든 사람들과도 아낌없는 협력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천주교회는 지난해 부터 2000년 대회년 맞이 실천 운동으로 '새날 새삶'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나부터 새롭게' '참된 가정 이루기' '좋은 이웃 되어주기' '함께 가요, 우리' 등의 네 가지 차원에서 다양하게 펼쳐지는 새날 새삶 운동은 대회를 준비하는 마지막 해인 성부의 해를 맞아 우리 모든 신자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실천해야 할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운동이 한낱 구호가 아니라 생활 실천 운동으로 구체화되고 정신 운동으로 이어진다면, 우리 교회는 2000년 대회를 참으로 '해방의 해'이자 '은총의 해'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많은 이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알리고 그들을 하느님께 귀의하도록 도와주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창훈(알퐁소·홍보분과위원)



한국평협 30주년 기념
평협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

박문수(우리신학연구소 연구실장)



1. 프로젝트 배경 및 목적

서울 평협에서는 설립 30주년을 기념하여 평신도 제자리 찾기 과제로 “1) 교회법 및 가톨릭 신학이 지지하는 평신도 및 평협의 위상 파악, 2) 현직 평협회장(본당·지구·교구)들의 방향에 대한 의견·운영실태 및 욕구파악, 3) 서울 평협의 위상제고를 위한 의견제시 근거자료 마련을 위한 연구과제를 설정, 우리신학연구소에 진단을 의뢰하였다. 기간은 98년 6월 1일 부터 10월 15일까지로 약 4개월 반이 소요되었다.

2.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는 1) 30년사와 교회법·외부 환경에 대한 문헌조사, 2) 평협조직진단, 교구 내 평협회장의 평협위상·미래방향에 대한 의견 및 욕구파악을 위한 심층면접과 설문조사, 3) 해외의 모범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4) 조직진단·외부환경의 분석을 토대로 SWOT 진단법을 사용하였다.

2.1. 문헌조사

2.1.1 30년사 분석

30년사를 통하여는 평협의 설립 배경, 설립 이후 활동상황, 교회와의 관계, 평협운동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활동동기 등을 파악하였다. 실제 30년사 분석을 통하여 평신도 지도자들과 교회상층부와의 관계사를 잘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미래의 방향을 예측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매우 중요하였다.

2.1.2 교회법 및 관련 규정 분석

평협이 교회안에서 어떤 법률적 지위를 갖는지를 파악하는데 유용하였다. 이에 대한 검토는 현재의 지위에 대한 불만족의 반영인데, 실제 평협은 공립단체와 사립단체의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 협의회 형태는 교구중심제인 현 교회법 구조안에서 최선의 구조로 파악되었다. 역시 추세를 예측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중요하였다.

2.2 조직 진단 및 설문조사



2.2.1 조직진단

조직진단은 사명에서 부터 교회와의 관계양식에 이르기까지 조직을 구성하는 16개 분야에 대한 심층면접과 문헌자료 분석을 통하여 조직의 운영실태와 평협의 내부조건의 강약점을 분석하였다.

2.2.2 욕구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설문조사를 통하여는 평협 임원진을 대상으로 교회문제, 평신도의 교회내 지위, 평협의 목표와 각 단위 평협과의 관계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였다. 방법으로는 회장단에 대한 심층면접과 기존 평신도 대상 조사항목을 토대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2.3 벤치마킹(Benchmarking)

다른 나라 가톨릭 교회의 자발적인 평신도 조직과 공식기구를 막론하고 평신도 활동에 모범이 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평협에 교훈이 되는 요소들을 파악하였다. 실제 수집사례는 5개 대륙 8개 사례였다. 이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사례는 타종교인 영국 성공회의 구조였다. 교회법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 응용할 수는 없었으나, 선진적인 모델로 채택할만 하였다.



2.4 외부환경분석

주로 문헌조사를 통하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일반 사회환경, 타종교의 환경, 교회내 각종 변동현황을 파악하여 우리 시대에 평신도들에게 의미하는 바와 사도직의 수행과제를 제시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하였다.

2.5 SWOT분석

외부 환경의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요소, 내부환경(조직 진단)의 강약점(Strength & Weakness)을 비교 분석하여, 평협이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상의 방법과 과정을 통하여 서울 평협이 한국 교회와 사회안에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실천전략을 도출하였다.

3. 평협지도자들의 욕구 파악을 위한 설문 조사

조직 진단의 일환으로 전국 평협상임위(1998.7.11)에 참석한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① 평신도 지도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② 본당평협의 운영 실태(행정, 재정 및 의사 결정), ③ 본당 평협지도자의 자격 요건 및 리더십에 대한 견해, ④ 본당 평협지도자와 주임신부의 관계에 관한 의견, ⑤ 교구평협과 지구평협의 관계에 대한 태도, ⑥ 평협 지도자들의 투신도, ⑦ 교구 및 전국평협의 교회 내 위상에 대한 의견, ⑧ 평신도 사도직 수행의 장애 요인에 대한 인식, ⑨ 평신도 및 평협의 사명에 대한 인식 평신도 지도자 등 총9개 분야, 32항의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자기기입식(Self-Administered)으로 실행하였다. 설문 수거율은 당일 참석자 80명중 62명(62/80명)이 제출하여 77.5%였고, 자료 처리는 코딩

(Coding)→ 펀칭(Punching)→ 에디팅(Editing) 과정을 거쳐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하였다. 독립변수는 성·소속만 하였고, 사례수도 많지 않아 교차 분석 등은 하지 않고, 빈도 분포만 내었다.

3.1 응답자 분포

응답자 분포는 서울교구 평협임원이 35.6%, 전국평협임원·서울교구 외 평협임원 각각 20.3%, 서울평협 소속 교구단체장·서울교구 본당평협임원 각각 11.9%순이었다. 성비는 남 95%, 여 5%였다.

3.2 본당 내 평협과 본당사목회 구분여부

본당 내 평협과 사목평의회의 설치 실태는 전국 대부분의 본당이 사목평의회만 있는 경우 88.7%, 평협만 있는 경우 6.5%, 둘 다 있는 경우 3.2%, 기타 1.6% 순으로 나타났다. 평협만 있는 경우도 실제로는 사목평의회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95.2%가 사목평의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는 평협의 지도력이 밑으로부터 형성되지 않고, 성격이 모호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

3.3 본당평협의 운영 현황

여기서는 평협에서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하는 인물, 평협회장·임원 선출 방식, 평협의 의사 결정 방법, 주임신부와의 갈등 이유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는데 평신도 지도자들의 본당 내 지위와 교회 내 평협의 지위를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었다. 나타난 결과의 특징을 보면 대체로 본당과 사목회 운영에서 여전히 사제들이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 평협은 사목평의회와 혼동되어, 사목회로 통합되어 있으며 의장도 평신도가 맡고 있었다. 본

당 사목평의회와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단체의 협의회, 또는 신자들의 대표 조직이 혼동되고 있는 것이다. 사목회는 대체로 자발적인 평신도 사도직 단체나 구역·반조직에 기초한 지도력 형성 방식이 아니라 주임신부의 임명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며, 운영은 거의 사제가 주도하여 실제 사목회는 주임신부의 사목집행기구에 불과하였다. 응답자들은 이러한 일방적인 구조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고, 평협이 일관된 지침에 따라 운영되기를 기대하였다. 평협임원의 임기는 2년을 가장 적당하게 보았고, 임원의 숫자는 본당당 20명에서 40명 이내가 적당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3.4 지구·교구·전국평협의 관계

이 부분에서는 평협의 재정 해결방법에서 활동지원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요구, 지도신부와의 관계에서 지도신부가 제한적인 역할만 해야 한다는 요구, 교구평협이 교구 기구표상에서 교구장 직속 또는 최소한 총대리 직속의 공식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요구, 전국평협도 주교회의 기구표상에서 주교직속의 각 위원회의 위상을 가져야 한다는 요구와 교구평협과 회원 단체들과의 관계 문제에서 회원 단체들의 참여가 부족한 문제에 대한 의견이 중심이 되었다. 예산증액 요구와 기구표상의 위치, 즉 평협의 교회 내 위상과 관련된 문제는 필요하기는 하나 현재 여건상 상향조정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30년사에서 드러나듯이 평신도들의 연합조직 또는 전국단체로써 힘을 갖는 문제에 대하여 서울교구의 경우 본당 사목회가 주가 되고, 교구단체가 종속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어 교구단체의 참여가 저조하다. 이 역시 자발적인 평신도 단체와 본당사목회의 성격이 다름에도 형식적인 대표성을 본당평협에 부여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

였다.

3.5 평신도 지도자들의 사명 교육 실태

평신도 사도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평신도 자신의 자각이 가장 필수적이다. 자신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을 때 사도직 수행의 추진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한국 천주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은 이념적 자원이 부족하다. 자신의 신원에 대한 자각과, 자신의 신원을 뒷받침하는 이념적 자원에 대한 공부 부족함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평협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속한 조직의 역사, 사명에 대해 거의 공부하지 않았고, 평신도 사도직과 관련된 문헌에 대한 인지도나 사도직의 영역에 대한 인식에서도 뚜렷히 높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3.6 소결

평신도 지도자들은 현재 평신도 사도직의 장애 요인이 사제들에게 독점되어 있는 구조의 문제라 생각하면서도,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평신도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평신도들의 무관심이 사도직 수행의 어려움 중 절반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평신도의 자질 부족 13.1%를 합하면 62.3%가 평신도의 문제인 것이다. 이는 앞으로 교구평협 뿐 아니라 평신도 사도직의 우선 과제가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사명 의식을 심어 주고,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4. 평협의 교회법적 위상

4.1 평협 위상에 대한 엇갈린 이해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현대 세계에서 평신도들이 가지는 선교적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

면서 평신도의 사도직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 동안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된 평신도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당당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지위를 한층 높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교황청은 물론 각 지역 교회는 평신도 사도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의회 이후의 평신도 사도직은 과거에 비해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한국 천주교회도 교도권의 주도로 '한국 평신도 사도직 중앙 협의회'를 1968년에 창립하였다. 전국 평신도 사도직 단체와 각 교구 평신도 협의체를 회원으로 하는 명실상부한 평신도 대표체를 탄생시킨 것이다. 이후 각 교구 조직이 결성되었고 80년대에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평협은 한국 천주교회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평협은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활동의 폭과 내용이 축소되었고 교회 내 위상 또한 불분명해진 것이다(이러한 이유에서 요즘 평협은 '제자리 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위상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 현실적으로 교도권은 현재의 평협을 평신도의 대표 기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으며 제도적인 장치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선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평협에 있다. 그러나 그러한 책임을 단지 평협에게로만 돌릴 수 없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를 지적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제도적인 측면과 관련해서만 언급한다.

4.2 정관분석을 통한 평협의 위상

전국 평협의 현행 정관은 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와 주교회의 인준 단체를 자신의 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교구 평협은 본당의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와 교구 연합 단체를 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관상의 이러한 규정은 평협이 모든 분야의 평신도를 대표하는 기구로 스스로를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관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평협의 현실적 위상은 사실 그렇지 못하다. 평협의 자신에 대한 주관적 이해와 객관적인 현실이 조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선 평협에 대한 교도권의 이해는 평협의 그것과 사뭇 다르다. 천주교 주소록이나 1994년에 발간된 한국 천주교 연감을 보면 평협은 다른 사도직 단체들 가운데 하나로 이해되어 있다.

여기를 보아도 평협이 사도직 단체와 각 교구의 평협을 대표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곳이 하나도 없다. 이는 전국 평협뿐 아니라 각 교구 평협도 마찬가지이다. 전국 평협은 주교회의의 조직표 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교구 평협은 대부분 사목국 산하이거나 그와 유사한 교구 스텝 부서의 산하에 위치해 있다. 그



리고 조직의 성격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난에서는 다른 사도직 단체의 위상과 같은 수준에서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이는 한국 천주교회가 평협의 주관적 위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협의 위상에 대한 교도권의 이러한 이해는 여러 가지를 말해 주고 있다. 그 가운데 교회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평신도의 의견 반영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평신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경로로 사목평의회 또는 사목협의회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구들은 관할권자의 사목 활동을 보좌하는 기구로 관할권자에 의해 위원들이 선발되는 자문 기구이다.

따라서 이 기구들을 통해서는 평신도의 의견이 공적으로 수렴되지도 않을 뿐더러 조직화된 평신도의 의견을 반영하기 힘든 구조이다.

게다가 이러한 성격의 기구는 대부분 유명무실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 그 실효성 또한 분명치 않다. 관할권자의 의지에 따라 기구의 성격과 활동이 결정되는 한계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 또는 교구 평협의 공식적 위상이 위와 같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평신도의 조직화된 의견이 교회 운영에 수렴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4.3 평협의 교회법적 규정

평협의 애매한 위상은 교회법과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보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법에는 평협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교회법은 교구 사목평의회와 본당 사목평의회를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교회법 512-514조). 관할권자의 사목활동을 보좌하고 자문할 수 있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의 협의 기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하

고 있지만 순수한 평신도 사도직 협의체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보편법을 한국 지역의 특수성에 비추어 규정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에도 평협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성화사업, 자선사업, 사회사업 등 교회의 여러 가지 사도직 활동을 수행하는 평신도 단체들은 ...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한다'(213조)고만 규정되어 있다. 이는 본당의 평협과 사도직 단체를 포괄하는 현 평협의 조직적 위상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사도직 단체에 국한된 것이다. 따라서 교회법과 그에 준한 제(諸) 규정은 현 평협의 위상에 대해 아무런 근거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평협의 위상은 상당히 임의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즉, 관할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평협의 위상이 달라지게 되는 불안정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평협의 교회 내 위상을 모호하게 할뿐만 아니라 교도권과의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지도 관계를 형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운신의 폭을 제한하고 소극적인 활동으로 일관하게 만들고 있다.

4.4 소결

평협의 이러한 위상은 조직적인 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소극적 이해와 권위적인 교회 운영 전통, 평신도의 미성숙 등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원인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어느 한 부분을 개선한다고 해서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평협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의 정비는 매우 중요하다. 법적인 요건들은 평협의 활동과 지위의 수준을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교회구성원간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5. 조직구조 분석을 통한 운영실태

5.1 사명

평협의 정관 회칙 2조 "이회는 교회와 한국 순교자의 정신과 교구장의 사목방침에 따르며 복음적 생활로 적극적이고도 효과적인 사도직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평신도에게 주어진 고유한 사명인 가정과 사회의 복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토대로 하면 1) 이념은 교회와 한국 순교자의 정신이고 2) 사명은 가정과 사회의 복음화이며 3) 전략은 교구장의 사목방침 이해, 2)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사도직 활동이 된다. 문제는 사도직의 영역을 전적으로 교회외부로만 보고 있어, 신자 개인과 교회의 내적 쇄신에는 소홀한 경향을 보이는 점이다. 또한 실천전략이 구체적이지 않다. <평신도 사도직 교령>, <평신도 그리스도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실천전략들을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5.2 구성원 : 인구사회학적 특성

평협의 성별분포는 전적으로 남성중심적이어서, 여성의 참여비율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평협 도자들의 사회계층적 분포는 중간층 이상으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다. 이는 현재 한국 천주교회안에서 평신도 지도력의 형성이 중간층의 경제, 문화적 요인을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5.3 구성원들의 평협 현황과 전망에 대한 인식수준 평협의 현황에 대하여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나,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는 희망적이다. 미흡하다고 보는 가장 큰 원인은 평신도 지도자들의 소극적인 투신의지, 두 번째로는 교회안에서 성직자들의 견제와 무관심이 지적되었다. 사명과 활동에 대해서도 그

리 높지 않은 인지도를 보였는데 이는 임원으로 선출되었을 때 평협역사 교육, 평신도 사도직 관련 문헌 등에 대한 사전교육이 충분하지 않고, 투신도를 높일 수 있는 자체내 교육 시스템이 부재한데서 비롯되었다.

5.4 업무처리 절차

활동의 주체들이 대부분 비상임인 경우 사무국의 기능이 중요한데, 사무국은 행정지원 업무 이상을 담당하고 있지 못해, 사명실현에 어려움이 있다. 실제 평협회원 단체를 지원하는 기능이 전무하며, 분과사업에 대한 지원 기능 역시 행정 지원외에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형편이다. 이럴 경우 사무국장은 분과의 업무조정 기능, 회장단 보좌, 조직사업 등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하는데 역시 자질이 충분하지 않다. 평협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무형 전문가 출신이 사무국장을 하고, 간사 2명중 1명은 회계, 행정, 전담, 다른 1명은 프로그램 및 연구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5 정보관리

평협에서 사명 실현을 위하여 취급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 활용빈도, 활용수준을 보면 세 분야 모두에서 낙제점이었다. 정보의 입수내용이 평신도 사도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활용빈도나 활용수준도 미미하고 낮다. 이는 평협의 일차적인 목적이 평신도 사도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이 사명에 대한 충분한 인지 또는 활동에 대한 투신의지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기존의 활동구조 분석에서도 거론되었지만 사명수행과 관련된 활동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정보생산·관리·지원구조를 구축하는데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이에 걸맞는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부분적인 대안으로 사무국 직원의 전문화를 생각해볼 수 있다.

5.6 성과측정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각 활동들의 성과측정 기준과 방법을 보면 사업평가는 업무 감사시 계획대비 시행이라는 단순평가가 전부이다. 자연히 사업의 대상이 되고 있는 회원들로 부터의 평가는 배제되어 있다. 아울러 사업후 도달해야 할 수준에 대한 척도가 미비하여 단순 평가가 주축을 이룬다. 두 번째로 평협내 각 분과의 사업성과추이는 추세를 살펴볼 수 있을 만큼 연속성이 없는 단발성 행사위주여서, 성과에 기초하여 새로운 시도를 구상하는 과정이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 성과측정 지표를 정하고, 단발성 행사위주보다는 연속성있는 사업을 구상하여, 단계별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7 리더쉽

현재의 지도력 형성방식은 1) 본당 사목회장 → 지구평협회장 → 교구평협회장 → 전국평협회장 2) 본당사목회장 → 교구평협회장 → 전국평협회장 3) 교구단체장 → 교구평협회장 → 전국평협회장 방식인데 3)의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고, 1), 2)의 방식이 지배적이다. 이는 현재 평협이 사도직 단체의 협의회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 교구단체들이 동원능력 및 영향력면에서 본당 사목회에 열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선출방식은 교구의 경우 경선제인데 교구평협의 실무를 통하여 형성된 지도력이 아니면 당선되기 힘들다. 따라서 회원 → 교구평협임원 → 교구평협회장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도력으로 보면 한국 사회 일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권위주의적인 지도력이다. 이는 부분적으로 회원들의 투신의 지가 빈약하고, 회의 운영에 소극적이어서 회장단 중심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사정에서 비롯된다. 현재의 지도력으로 보면 본당을 제외한 교구단체에 대한 장악력 및 지도력은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개선방향으로는 교구단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교구단체의 협의회 성격을 잘 살려나가는 것이다. 지도자 유형은 조직 관리에 적합한 화합형을 부회장단으로 하고, 비전에 입각하여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전문가형 지도자를 회장으로 하여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당연히 지도력은 참여적인 유형의 지도력이 필요하다.

5.8 교도권과의 관계

평협과 교도권과의 관계는 매우 미묘하다. 평협은 속성상 연합회나 전국조직을 지향하는데 반하여 교도권의 핵심인 주교회의나 각 교구의 고위성직자 그룹은 평협의 이러한 시도들을 평신도의 세력화 움직임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주교회의는 평협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는 연합회가 아닌 단순 협의기구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였고, 전국 조직에 대해서는 현 가톨릭의 구조가 교구중심이므로 교구중심의 활동이 바람직하니 전국조직은 단지 협의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평협이 회원 단체의 협의체로서 기존 단체의 상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역시 협의체라는 이유를 들어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만일 평협이 이러한 교도권의 방침에 도전하는 조짐이 보이면 교회는 일방적인 제한조치도 주저하지 않는다. 일례로 주교회의는 87년 당시 전국평협의 자율성 요

구가 커지고 활동이 정치화되자 전면적인 통제방식을 취하였고, 이를 위한 한 방편으로 담당 주교가 회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하여 활동을 위축시켰다. 서울교구의 경우엔 71년 교구 사목위원회가 설립되자 교구 평협의 활동이 정지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본당에서 주임신부와 평신도 단체들간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앞서 조사결과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대부분의 본당에서는 주임신부의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권한행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본당에서는 현재 사제의 권한으로 인정되고 있는 재정, 인사, 운영에 관한 도전만 하지 않으면 평협이나 평신도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에는 해체시키거나 존속시킨다 하더라도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지배적이다. 이상에서 교회는 평신도 지도층 또는 평신도 단체들의 자원을 이용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권한이나 자율성은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9 전국평협과의 관계

현재 구조를 보면 서울 평협이 전국 평협까지 관장하고 있다. 편의상 그렇게 한 것이지만 문제가 적지 않다. 실제 운영과정에서 임원들이 양 조직을 동시에 맡는 경우가 많아 활동과 권한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회장단에서 조차 양 조직의 사업을 혼동하는 경우마저 생긴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이긴 하지만 양자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사업 시행상의 시기도 구별하여 혼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10 교구평협과 일반신자들과의 관계

신자들은 평협의 존재자체를 모르고 있거나

설사 안다해도 본인들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실제 교구평협의 활동이 본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없는 데서 비롯된다. 그리고 교구에서 활동하는 신자들은 대부분 본당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고, 평협이 본당의 평신도 지도자들의 협의체 정도로 이해되고있어 신자들은 자신들과 평협을 가까이 느낄 수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앞으로 평협은 적극적인 평신도의 대의기구의 성격을 띠어가면서 신자들의 욕구에 기반한 활동을 벌여나감으로써 신자들과의 격차를 줄여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11 활동구조

평협의 일상적인 활동은 연속성이 없는 일회적인 행사 중심의 활동인 것이 특징이다. 실제 유사한 성격의 활동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신자들의 참여는 보장하지 않은채 상층기구 중심의 형식적인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이로인하여 전체적으로 평협의 사명수행에 대한 비전이 활동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는 평가를 신자들로부터 받고 있다. 폭넓게 해석해보면 평협의 활동은 모두가 사명에 적합하나 전략적 중점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고, 중점이 뚜렷할 경우에도 스텝들의 시행의지가 빈약하여 활동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회의구조를 잘 유지하면서 지구평협간의 정보교류, 평신도 지도자 육성에 대한 투자, 평신도의 위상제고를 위한 활동을 통하여 기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할 필요가 있다.

5.12 조직구조

현재 평협의 사무국을 포함하여 전체 회의구조는 일을 위한 구조이기 보다 회의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라는 인상이 강하다. 중앙에 분과위원을 포함하면 100여명 가까운 인원이 포진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이 비활동적이고, 상부가 지나치게 비대하기 때문이다. 협의회의 성격상 많은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부득이한 선택이라고 하겠으나 조직은 일을 위한 것인바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조직구조로 탈바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선 방향으로는 1) 불필요한 조직, 기구를 폐지하여 조직을 단순화하고, 2) 정보생산, 보급,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구조를 조정하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인사를 영입하며, 3) 평신도 사도직의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설계에 바탕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명감있고 투신의지도 높은 인물들로 분과위원회와 집행기구를 강화하며, 자문위원회를 분과중심으로 재편, 분과의 전문성을 살리는 쪽이 바람직하다. 4) 아울러 실천전략을 현실에 맞게 수립하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재배분하는 것이다.

5.13 평협의 변화관리

평협이 변화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소로는 1) 30년간 유지되어온 타성에서 오는 관성적인 사업태도, 2) 평신도의 조직화를 우려하는 고위성직자, 3) 평신도 사도직 운동의 빈약한 토대를 지적할 수 있다. 또한 평협이 가장 먼저 변화시켜야 할 요소로는 1) 평협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회원들의 소극적인 투신의지, 2) 평신도 지도자들의 책임의식 부족, 3) 관성적인 사업태도를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장애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물리적 요인이 아니라 심리적 요인임을 감안할 때 해결방향은 내부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벤치마킹(Benchmarking) 결과

6.1 비교대상 가톨릭교회 평신도 조직들의 특징비교를 위해 아시아에서 일본·필리핀, 북미주에서 미국, 남미에서 브라질, 유럽에서 독일, 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타교파에서 영국 성공회를 선택하였다.

비교결과 미주, 유럽의 경우는 자발적인 평신도 단체들이 직능별·관심사별로 조직되어, 본당과 교구를 초월하여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다. 교구별로 조직된 평신도 단체는 전국적 네트워크를 가진 조직들의 지부형태였다. 교회 공식조직내에서 서울 평협과 같은 조직은 찾을 수 없었다.

대체로 이들 국가안에서 발견되는 공식조직은 본당·교구 사목평의회가 유일하였다.

아시아에서 일본은(동경교구의 경우) 서울 평협과 같은 조직이 교구의 공식조직으로 조직표상에 존재하였지만, 실제 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아시아의 필리핀, 남미의 브라질,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소공동체 또는 교회기초공동체 형태가 일반적이었는데, 본당의 조직 형태는 대체로 소공동체의 조직 모델을 따르고 있었다.

그래서 의사결정 및 운영에 전 신자 참여, 밑으로부터의 지도력 형성과 같은 공동체의 가치들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높은 책임 의식을 보여주고 있었다. 평신도의 자발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형태인데, 앞으로 서울 평협이 참조할 발전모델 가운데 한 유형이다. 성공회는 교황제도를 제외하고는 가톨릭교회와 대체로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사례로 채택하였는데, 가톨릭의 중앙집권주의에 대한 대안적 요소를 교회운영과 조직에 반영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많았다. 배울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는 교구와 관련된 문제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일뿐 아니라 주교를 선출하는 기관인 교구상임위원회를 들 수 있다. 이 위원회는 각

본당에서 선출된 평신도 대표 2명과 주임사제

1명과 교구 각 부서의 책임자인 성직자들로 구성된다. 비율상으로 보면 평신도와 성직자가 2 : 1이다. 이는 실제 교구운영과 정책결정에서 평신도들의 의사가 전적으로 반영되도록 의도적으로 설정한 비율이다. 교구평협은 조직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친목단체의 성격이 강하였다.

미국의 Call to Action 또는 유럽을 기반으로 하는 We are Church Movement 등은 회원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범세계적인 조직으로 가톨릭 교회내 비제도적 국제 평신도 단체로서 교회안팎에서 NGO(비정부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아직 한국 교회의 실정에서는 수용하기 힘든 진보적인 신학관과 교회관, 대사회적 활동을 펴고 있었다. 그럼에도 앞으로 발전 모델로 고려해볼 만 하였다.

6.2 비교결과가 평협에 시사하는 점

우선 예산의 독립성을 들 수 있다. 조사대상으로 채택된 교회들의 평신도 조직은 재원을 독자적으로 조달하였다. 이는 서울평협의 경우 대부분의 예산을 교회로부터 지원받는 것과 대조가 된다(현재 한국 가톨릭교회에서는 평신도 주일의 2차헌금을 각 교구별로 모아 일정 비율에 따라 교구, 전국 평협에 배분하고 있다). 이 예산이 결국 평신도들이 낸 것이기 때문에 예산 사용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헌금은 전액 교회가 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때 반드시 정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두 번째로, 외국의 평신도들은 자기 직무에 대한 확신이 강하고, 자발성이 강하다는 점이다. 평신도의 신원에 대한 분명한 자각에 기초하여 능동적으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한국의 평협 또는 상당

수의 평신도 조직은 자신의 직무에 대한 자각이 미흡하며, 수동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직무에 대한 소극적인 인식과 성직자와 수도자에 의존하는 태도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가톨릭교회의 평신도 활동이 능동적인 것이 사실이지만 자발적이고, 신원에 대한 뚜렷한 자각에 기초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능동성과 활발한 활동참여는 신원에 대한 자각이 따라줄 경우 커다란 잠재력이 될 것이다.

세 번째로, 외국 평신도 조직의 경우 지도력을 밑으로부터 형성해오고 있는 점이다. 교회의 봉사직무가 대체로 밑으로부터 추대에 의해 출현하는 것이라고 할 때 외국의 사례들은 교회의 정신에 가깝게 가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서울 평협 또는 산하단체들의 경우 임명과 같은 수직적인 형태를 일반적으로 따르고 있고,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는 본당에서부터 추대되는 지도력이 아니다. 지도력의 형성 방향은 결국 공동체에 대한 규정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밑으로부터 형성되는 지도력은 상층과 하층의 유기적인 연결을 보장하는데 필수조건이라고 하겠다.

네 번째로, 외국의 평신도 조직의 활동내용은 주로 사회지향적이다. 현세질서의 성화가 평신도 직무의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한국 가톨릭교회의 평신도 조직들은 대체로 성숙이 원론에 빠져있다.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는 교회유지활동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교리가 부족하여 대체로 바깥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가지는 형편이고, 설사 갖는다해도 자신의 직장 또는 지역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6.3 소결

벤치마킹의 목적은 말 그대로 남에게서 좋은 점을 배워오기 위한 것이다. 물론 비교를 통해 남들이 갖지 못한 우리의 장점을 발견하고, 이렇게 발견된 장점을 계승 발전시켜나가는 것도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이다. 비교를 통해 우리의 단점이 많이 드러난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가진 장점도 많았다는 것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우리는 교회를 위해 투신하려는 평신도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가톨릭 국가의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열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평신도들이 시작한 교회라는 독특한 종교문화적 전통도 우리만이 갖는 강점이다. 물론 이러한 장점은 우리가 가진 약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병행할 때 더욱 빛나게 마련이다.

7. 종합

7.1 발전방향

먼저 자신의 직무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신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평신도들을 위하여 평협은 평신도도 교회 선교사명의 중요한 주체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일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평신도를 대표하는 조직이면서도 커다란 역할을 하지 못했던 평협이 내적 쇄신을 통하여 자신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평신도의 자질향상이다. 교회의 선교사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질(신학적 지식, 교회 일반에 대한 상식, 사회교리 등)을 평신도들이 갖출 수 있도록 평협이 독자적으로 연구와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기존의 평협은 교구에서 설정한 사목과제들을 수동적으로 집행하는 구조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일 외에도 독자적으로 평협이 선교전략을 연구하고, 대안집단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기능과 이 연구 및 독자적인 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네 번째로, 명실공히 평협이 평신도를 대변하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 중앙기구로서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미 확인한 바이지만 위로는 교회로부터 아래로는 일반 신자들로부터 평협의 위상이 올바르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본당과 회원단체와 긴밀히 결합하면서 밑으로부터 권위를 이끌어내고, 위로는 밑으로부터 부여된 권위를 바탕으로 평신도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평신

도들의 교회내 직무를 강화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이와 연장선에서 평협은 밑으로부터 형성되는 지도력에 기초하여 평신도 대의기구로 발전해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성서에서 지지하는 지도자 모델에 따른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고, BCC(교회기초공동체), SCC(교회소공동체), 소공동체 네트워크와 같은 밑으로부터의 지도력을 형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회원단체와 본당 또는 일반신자들에게 평협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료정보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본당이나 회원단체에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에서부터 평신도사도직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에 이르기까지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발전방향을 세단계로 설정해볼 수 있는데 1단계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장점

도 많으므로, 이 장점을 강화하면서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고, 2단계로는 대의기구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평신도 대표조직, 소공동체 모델의 장점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거나, 외국의 자발적인 평신도 단체들의 운영방식을 도입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평신도의 독자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 3단계로는 앞의 2단계의 두 요소들을 결합하거나 소공동체 교회기초공동체의 모델로 발전해가는 것이다. 물론 상위단계로 이행할 때마다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과정이다.



7.2 발전방향에 입각한 세부 과제

앞서의 발전방향을 토대로 하였을 때 1단계가 향후 목표가 되겠는데, 이를 위해 대략 여섯가지 과제가 도출된다. 첫째, 조직강화이다. 이미 지적받은 위상의 모호함을 제대로 정리하여 회원단체

와의 관계 개선과 정비가 필요하고, 다른 교구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관계를 유지하며 새로운사명에 입각한 과감한 조직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활동방향 개선이다. 지구중심제 사목에 대비하여 지구평협을 강화하고, 지구평협과 본당사목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교구의 좁은 테두리를 벗어나 적어도 아시아지역까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평신도 단체 네트워킹의 주도적인 역할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독자적인 연구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교구 사목방침 수립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세 번째로, 투입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불필요한 영역에 투입되는 예산을 줄이고,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필수적이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재정을 할애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평협이 공식예산외에 별도로 재정을 만들어 특별연구사업을 수행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정기적으로 임원진들에 대한 교육을 제도화하여 고급정보를 수시로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여성·환경·정의평화분야를 강화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이 분야에서 필요한 과제이다.

네 번째로, 정보관리방식의 개선인데 소식지의 기능을 강화하고, 회원단체 및 일반 신자들을 위하여 평협관련자료, 평협내 주요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사무국 인력을 전문화하여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작년부터 시작된 평신도 제자리 찾기 사업의 구체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신도를 위한 상설교육기관 개설이 필수적이고, 교회내에서 일할 평신도 전문가를 독자적으로 양성하는 작업이 불가결하며, 평신도대회의 정례화를 통하여 토착화, 평신도 사도직강화, 평신도의 선교·영성문제를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회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에 대비하여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교회내 신원간에 발생하는 갈등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미리 대비하여 우리 교회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8. 총결론

발전방향과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제를 현실화하는 실천이다.

앞으로 교회현장에서는 평신도를 요구하는 과제들이 매우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래서 이를 위한 준비작업이 시급하다. 이런 과제를 수행하는데 여러 도움과 과제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평신도 자신들의 자각이라고 하겠다. 스스로의 자구노력을 통해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때 한국천주교회의 창립전통을 계승할 수 있을 것이고, 미래를 위한 과제들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자각을 바탕으로 앞서 제시된 과제들을 능동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평신도 사도직의 본분을 다해야 하겠다. 교회안에서 최대 다수를 차지하면서도 능력이나 자질에서 부족하여 선교사명의 공동협력자로 서지 못하는 평신도들의 부족함을 보완해나가야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신도 사도직의 긴급한 요구와 과제들을 수용하는 것이 평협 본연의 임무이다. 부디 본 연구를 계기로 평협이 내적 쇄신과 조직 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천년대를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한국평협 30년사 편찬을 위한 준비

강수길(그레고리오 · 30년사 편집위원장)

1998년은 한국평신도사도직협의회 창설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88년 20주년을 맞았을 때 「한국평협 20년사」를 발간했다. 10년이 지났지만, 평협으로서는 그 역할과 위상에서 다시 한 번 30년을 돌이켜 보고, 현재의 평협 활동을 검증하며 미래 한국 교회의 아시아 및 세계를 향한 복음 화에의 기여를 위해 역사 기록으로서의 편찬을 결정하였다.

전국 본당에서도, 역사 기록이 빈약했던 천주교 200년을 감지하고, 10년사, 20년사, 25년사, 30년사, 50년사, 100년사 등 자료를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고,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도 이들 역사 기록을 위한 지침과 논문들을 내놓아 교회사 작성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평협 30년사도 그러한 지침과 논문 등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교구 및 단체사 서술 및 편찬방법」을 제시하여 교구·단체에서 이에 따라 작성된 것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30년사를 저술하고자 편찬위원회와 편집위원회를 구성,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바람직한 역사기술로 남도록 노력할 것이다.

◆ 편찬위원회

위원장: 한국평협 회장

위 원: 교구 평협회장, 전국평협 기획분과위원장, 홍보분과위원장, 정의평화분과위원장,
편집위원장

◆ 편집위원회

위원장: 문화분과위원장

위 원: 사무총장, 기획분과위원장, 홍보분과위원장, 사무국장

◆ 편집실무: 문화분과위원, 기획분과위원, 사무국 직원

교구 및 단체사 서술 및 편찬방법

1. 편찬의 목적

- 1) 한국 평협 30년의 발자취를 서술한다.
- 2) 신앙적 차원에서 복음 전파와 신앙 실천의 양상을 파헤친다.

- 3) 평협 활동의 사목 경험을 후대의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 4) 활동사적 차원에서 과거 평협에 참여한 사람들의 활동을 통해 오늘날의 성숙된 모습으로의 성장, 현황을 드러내고 복음 전파에 수반되었던 제반 문제점의 극복이라는 행동 형태를 오늘날의 신자들에게 주지시켜 앞으로의 평협의 진로를 설정하는 관건으로 삼는다.
- 5) 교구史나 교회史를 구성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 6) 한국의 일반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국 역사의 한 부분으로서의 위치도 고려하여 드러낸다.

2. 기본방침

- 1) 한국 평협 20년사예의 보충이 아니라 한국평협 30년을 한 단위로 하여, 역사적 재조명을 시도한다.
- 2) 한국평협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구성원으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일깨움으로써 자신의 정체성(正體性)을 확인하고 쇄신을 거듭하여 본당과 소속 공동체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고 지역사회를 구원할 책임을 다하게 한다.

3. 집필 기본 방향

- 1)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의 정신에 입각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발전을 지향하는 입장을 견지한다.
- 2) 평협활동의 특수성과 시대의 징표를 식별하여 신심활동을 펴온 과정을 밝힘으로써 보편교회의 단일성의 토대위에 지역교회의 다양성과 토착화 지향성을 부각시킨다.
- 3)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와 소속 교구의 사목지침이 평협 활동에 어떻게 구현되어 왔는지를 염두에 둔다.
- 4) 공동체의 내성 분야보다 대화 측면을 중시하여 말과 행동으로 증거하는 하느님 백성의 생활이 한국 교회와 교구에 끼친 영향을 주목한다.

4. 집필 기본원칙

- 1) 교구별 평협활동의 도입에서 현재까지의 내용을 성장 단계로 나누고 편년체에 의해 서술한다.
- 2) 서술할 때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게 한다.
- 3) 전망을 서술할 때는 희망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후세 신자들이 평협의 역사에 대한 긍지를 갖도록 한다.

5. 편찬의 목적

- 1) [한국평협 20년사]를 참조하여 역대교구 평협 회장 및 임원의 활동을 성장, 발전, 쇄신된

내용의 양상으로 시간 순서를 밟아 수집, 정리한다.

- 2) 교구별로 지역적, 시대적 배경역사와 교구장 사목지침, 한국교회의 현실과 관련한 평협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 시대적 특성을 각각 이용한다.
- 3) 교회사 연구소, 교구청 자료, 평협자료 등을 사진과 함께 수집하여 정리한다.
- 4) 역대회장, 역대 지도사제 그리고 역대 임원과의 좌담회를 통해 의견과 자료를 수집, 정리한다.
- 5) 30년사 편집위원회(한국평협)와 의견을 교환하여 전국30년사의 맥락에 일치시키도록한다.

6. [차례]의 개략

- 1) 전국 평협사 2) 교구 평협사 3) 전국 단체 약사 4) 각종 자료

7. 교구 평협사(단체역사)의 차례(안)

※ 규격: 용지크기 19*25.8cm, 상.하단여백 3cm, 좌.우여백 2.5cm, 서체크기 10.5pt, 글꼴 신명조

가. 평협(단체)의 개황

- ① 소재지 : ② 설립 연·월·일 : ③ 대표 (회장) : ④ 총재 주교(지도사제) :
⑤ 부총재 주교(사제) : ⑥ 지도신부 : ⑦ 지역 및 지구별 본당, 단체 :

나. 평협(단체)의 역사

- ① 여명기, ② 창설기, ③ 시련기, ④ 중흥기, ⑤ 발전기, ⑥ 현재(1998년 말)

다. 중요행사 및 사업 (연대별)

- ① 교구 설정, 주년 기념행사 ② 심포지엄, 평신도 교육, 연수 - 교구 평협이 주도한 사업
③ 신학강좌 ④ 평협(단체)의 주관사업 주요회의

라. 역대 총재주교, 지도신부, 임원

마. 연도별 예산, 결산 총액 (총수입, 총지출, 잔액)

바. 평협(단체)회칙 개정사

사. 사무국 일지 - 교구 평협(단체) 연혁

아. 교구평협(단체) 인쇄물, 책자, 연도별 출판 사항 및 내용 요약

자. 사무국 직원(역대)

차. 연도별 중요사진 20매 내외(사진 이면에 설명을 붙임), 단체 행사, 연수, 피정, 기타

카. 주교좌 본당 전경 사진 1매

타. 교구장, 평협 임원 단체 사진 1매

한국평협의 「경제살리기」위한 우리들의 다짐

아이 엠 에프 관리체제 직후에 한국평협은 이 글의 제목과 같은 선언문을 실천사항 7개항을 붙여 전국에 발표(1997. 11. 23)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평협의 평신도 '제자리 찾기'와 접맥된 자리에서 한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안간힘을 우리 나름대로 주창하고 실천하고자 자책과 함께 촉구하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350만 신자들이 앞장서서 실천하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본당 별로 단체별로 또 신자 개인별로 자신을 돌아보며 쇄신하고 이웃과 나누며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겹고 감동적인 회생과 헌신이 곳곳에서 펼쳐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8년 1월은 더 많은 실직자들이 거리를 방황했고, 많은 중소기업은 도산했고, 대기업은 구조조정으로 무더기로 근로자를 해고하며, 한국사회 전체가 정신적으로 황폐화 했습니다.

이에 한국평협은 1998년 1월 20일에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평신도 선언문」을, 실천사항 4개 분야(본당, 가정, 일터, 학교)의 30개 항목을 발표하고 「아나바다물」운동의 생활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아나바다물」 = 아껴쓰기, 나눠쓰기, 바꿔쓰기, 다시쓰기, 물려

쓰기)

명동성당에서 개최된 김수환 추기경 주례의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특별 기도회」에서 일제시대 때 「국채보상운동」을 펼쳤던 자랑스런 평신도 신앙 선조들을 본받아 제 2의 국채보상운동을 벌여 나가자고 촉구했습니다. 따라서 신자들이 중심이 되어 경제난국 극복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자고 요청했습니다. 한국평협(회장 류덕희)이 발표한 이 선언문에서 「3백 60만 평신도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빛없는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주자」고 호소했습니다.

1998년 4월 18일과 19일 한국평협은 안동교구 농은수련원에서 제 1차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실직자를 위한 사랑나누기 운동」을 전국 차원에서 일제히 전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1998년 10월 23일 실직자가정 돕기 범국민캠페인 준비위원회(전국 120여 단체)의 요청으로 정부 행정자치부, 지방 자치단체, 새마을 운동본부 등과 협력하여 이 운동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15개 각 교구 평협회장님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였습니다.

2000년 대희년을 앞두고, 국난

신자들이
중심이 되어
경제난국
극복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자고
요청

의 시련속에서 그 극복을 위한 한국평협의 실천노력이 각 교구평협과 전국 본당까지 확산되어, 이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 나가기 위해 모두 한 마음 한몸이 되어 실업시대를 하루 빨리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열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1998년 1월의 「선언문」을 한번 더 확인해 둡니다.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평신도 선언문

온 국민을 좌절과 고통에 시달리게 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금융하의 경제난 극복여부는 우리들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최근 기업과 노동자, 정부가 한 마음이 되어 IMF 위기를 극복하고자 열의를 다하고 있으며, 국민들도 금모으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경제난 극복에 눈물겨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경제난국을 이겨내는 데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가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난국을 가볍게 인식하고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영원히 외채의 짐을 벗지 못한채 외국의 경제식민지로 전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당한 고통을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고스란히 안겨주는 치욕의 역사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치욕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현 위기를 극복하려는 각자의 실천의지와 각오를 새롭게 다져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907년에 서상돈

아우구스티노 회장을 비롯한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국채보상운동'을 벌여 나라 살리기에 앞장 섰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위기에 처한 나라를 살리는데 우리 평신도들이 나서서 제2의 국채보상운동을 펼쳐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솔선하는 모범을 보여 경제난국 극복운동을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모아 오늘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빛 없는 나라를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부끄럽지 않은 선조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해 경제위기가 발생한 때에 '경제를 살리기 위한 우리들의 다짐'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의 적극적인 실천을 위해 평신도사도직협의회에서는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실천사항'을 설정하고, 본당과 가정, 일터와 학교에서 각자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선언합니다.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실천사항〉

선조신앙인이 되어야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부끄럽지 않은
빛 없는 나라를 만들어

첫째: 본당에서는

- 예산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각종 행사를 줄인다.
- 평일미사는 소성당을 이용한다.
- 수입성물 구입을 자제하고, 국산성물을 애용한다.
- 미사참례시 자가용 이용을 삼가한다.
- 단체회합후 회식을 줄인다.
- 베품시장을 개설한다.

둘째: 가정에서는

- 금 모으기운동에 적극 동참한다.
- TV 시청을 줄이고 한 집에 한 등 이상 소등한다.
-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외화절약을 생활화 한다.
- 물을 아껴쓰고,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다.
- 외식을 줄이며 우리 농산물을 먹는다.
-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며, 자원재생에 협력한다.
- 외제품 구입을 자제하고 국산품을 애용한다.
- 수입식품을 먹지 않는다.
- "아나바다물"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고, 물려쓰기)운동을 생활화한다.
- 한가정 IMF 통장 하나 갖기에 앞장선다.

셋째: 일터에서는

-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닌다.
- 휴식시 컴퓨터 전원을 끈다.

- 고급식당, 호텔등의 출입을 줄인다.
- 돌반지등 금붙이 선물을 안한다.
- 경조사 비용을 줄인다.
- 이면지를 활용하고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 고급 스포츠(골프, 스키 등)를 절제한다.
- 자원 재활용에 앞장선다.
- 자가용 함께타기 운동에 앞장선다.

넷째: 학교에서는

- 외제학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 패스트푸드점(외국업체)이용을 줄인다.
- 참고서, 동화책, 옷(교복등)등을 물려받아 쓰고 입는다.
- 몽당연필을 볼펜에 끼워쓴다.
- 군것질을 줄인다.

1998년 1월 20일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류 덕 희 모세



가 본
정 당
에 에
서 서

학 일
교 터
에 에
서 서

전국 평협 단체장

단체명	단체장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마리아사업회(남)	자고모 펠리짜리	121-210	서울 마포구 서교동 461-4	02-332-1010
마리아사업회(남)	라이반나	100-452	서울 중구 신당2동 414-3	02-232-2460
간호시협회	최의순	130-050	서초구 반포동 505 가톨릭대 간호대학	02-590-1297
결핵사업연합회	송 숙	100-120	서울 중구 정동 17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04호	02-778-8155
나사업연합회	채규태	100-120	서울 중구 정동 17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07호	02-755-6311
노동청년회	황연홍	156-050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48-53	02-815-2483
군중후원회	이관진	100-022	서울 중구 명동2가 1번지 가톨릭회관	02-776-0457
맹인선교회	김경무	145-618	서울 강남구 개포3동 12-48	02-451-0333
미술가협회	최종태	121-240	서울 마포구 연남동 566-4	02-324-5286
병원협회	이성만	137-040	서울 서초구 반포동 505	02-590-1334
성령쇄신봉사자 협의회	김대군	100-022	서울 중구 명동2가 1 가톨릭회관	02-771-2199
실업인회	장덕진	100-022	서울 중구 명동2가 1번지 가톨릭회관	02-755-7060
아동복지협의회	전덕환 수사	220-031	강원도 원주시 학성1동 1023	0371-45-1489
언론인회	김성호	143-220	양천구 목6동 신시가지아파트 101-105	02-781-2800
여성연합회	박애주	100-022	서울 중구 명동2가 1번지 가톨릭회관	02-778-7543
의사협회	박용휘	137-701	서울 서초구 반포동 505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05-590-1320
중등학교 교장회	강석준 신부	320-800	충남 논산시 등화동 5 논산 대건 중·고등학교	0461-735-1960
꾸르실료	유양수	121-200	서울 마포구 합정동 97-1	02-337-8588
레지오 마리아 (서울)	강형일	100-022	서울 중구 명동2가 1번지 가톨릭회관	02-776-8520
레지오 마리아 (광주)	김영대	501-023	광주 동구 금남로 3가 3-5 가톨릭회관	062-227-7128

단체명	단체장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ME	강수길·오미호	135-0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263	02-511-9901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하경철	100-022	서울 중구 명동2가 1번 가톨릭회관	02-778-4476
M.B.W 추진회	조정오 신부	570-910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888-1 금마천주교내	0653-53-7187
농민회	이진선	300-182	대전광역시 동구 성남2동 1-170	042)673-4040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허항무	100-022	서울 중구 명동2가 1번지 가톨릭회관	02-775-0716



각교구 평협 회장

교구	성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서울	류덕희	138-170	서울 송파구 송파동 161 미성A. 5-506	자)02-421-9398 사)02-576-6001
광주	김기주	500-170	광주시 북구 운암동 미라보아파트 303-1002	자)062-360-5867 사)062-525-6669
대구	최옥식	706-080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132-6	자)053-766-0774 사)053-810-2335
대전	변평섭	302-171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801 미래주택 302호	자)042-482-9988 사)042-253-0074
마산	김서곤	631-150	경남 마산시 합포구 원월동 303-5	자)0551-46-9456 사)0551-44-3118
부산	안병희	602-103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3가 24-2	자)051-242-3668 사)051-243-3835
수원	황재용	411-09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215-30	자)0331-253-3477 사)0343-41-1424
안동	오영창	745-050	경북 문경시 모전동 264-1 현대A. 103-405	자)0581-53-2637
원주	정운주	220-110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원흥3차APT 301-706	자)0371-761-3661 사)0371-764-1614
인천	남기충	405-24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동 957-15	자)032-464-7713 사)032-469-8010
전주	김형열	560-17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동아APT 107-1001	자)0652-251-6373
제주	김경환	690-031	제주시 삼도1동 중앙하이 츠빌라 A.-302	자)064-58-3779 사)064-56-5913
춘천	이명원	200-100	강원도 춘천시 낙원동 64-2	자)0361-252-4283 사)0361-54-4283
청주	양친진	361-240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삼익A. 102-707	자)0431-66-1303 사)0431-55-1600
군중	이지두	140-600	서울 용산구 용산동3가 한국천주교 군중교구	자)0335-33-1722 사)02-748-7393

한국평협 임원명단

직책	성명	주소	전화번호
회장	류덕희	138-170 송파구 송파동 161 미성A. 5-505	자) 421-9398 사) 576-6001
감사	안병희	602-103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3가 24-2	자) 051-242-3668 사) 051-243-3835
감사	황재웅	411-09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215-30	자) 0331-253-3477 사) 0343-41-1424
부회장	김기주	500-170 광주시 북구 운암동 미라보아파트303-1002	자) 062-360-5867 사) 062-525-6669
부회장	최옥식	706-080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132-6	자) 053-766-0774 사) 053-810-2335
부회장	유양수	411-350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961-4	자) 557-9192 사) 594-0573
부회장	강형일	135-100 강남구 논현동 73-8 3층	자) 542-9962 서) 776-8520
부회장	박애주	135-081 강남구 역삼1동 670-12	자) 567-3234 사) 778-7543
사무총장 겸 사회교리 실천본부 본부장	강주희	151-029 관악구 신림본동 88-118	자) 878-5049
기획분과위원장 겸 대외연 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홍준	158-053 양천구 목3동 318-282 401호	자) 652-5732 사) 3450-2214
복음화 특별 위원회 위원장	김형중	120-013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26 1-1202 호	자) 363-4259 사) 586-8290
민족화해 특별 위원회 위원장	윤갑구	134-090 강동구 상일동 176 효성빌라 3-101	자) 426-7678 사) 548-0486
교육분과 위원장	김길성	150-055 영등포구 신길5동 355-158	자) 832-4387 사) 842-8988
국제협력분과 위원장	최광식	411-310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576 중산아파트 1201-503	자) 0344-976-0071 사) 337-8588
문화분과 위원장	강수길	138-172 송파구 송파1동 118 가락아트빌라 102호	자) 424-2673 사) 565-3311

직 책	성 명	주 소	전 화 번 호
홍보분과 위원장	이윤자	133-093 성동구 금호3가 1331 두산A. 116-503	자) 2252-5915 사) 778-7671
청소년분과 위원장	서 만 규	137-030 서초구 잠원동 53-1 강변A. 3-201	자) 537-3770 사) 557-4343
사회복지분과 위원장	이홍균	134-030 강동구 성내동 452-3 신호빌라트 1102호	자) 470-3290 사) 307-8171
정의평화분과	윤 학	137-040 서초구 반포동 591 위원장 효성빌라 1-102	자) 596-1687 사) 536-8641
도농협력분과 위원장	류정묵	120-013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50-33	자) 364-5862 사) 3444-8260

‘새날 새삶’운동 3

좋은 이웃 되어 주기

“좋은 이웃 되어 주기”는 회년의 정신을 사회 차원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루가 10,25-37)로써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를 살피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나서서 다른 사람의 좋은 이웃이 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준 사람은 누구였다고 생각하느냐?”(루가 10,36).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으로 점철된 우리의 세계에서 정의와 평화에 대한 투신은 회년의 준비와 경축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제삼천년기』, 51항).

표지 제자: 해강 강주희(한국평협 사무총장)
표지사진: 수원교구 주교좌 성당(1998년 사진)

「한국평협」 통권 37호

발행인 / 류덕희 · 한국평협 회장
편집인 / 이윤자 · 한국평협 홍보분과위원회
편집위원 / 우재철, 이창훈, 김진복, 강수길
전산작업 / 신동수
발행일 / 1999년 2월 25일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서울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층
☎ 777-2013, 771-7600(교환 2454 · 2455)
FAX 778-7427

대희년 준비를 위한 “성부의 해” 기도

-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느님,
찬미하나이다.
주님께서는 무한하신 자비로
근심에 싸인 저희를 굽어보시어
성자 예수님을 여인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저희의 구세주요 친구로,
저희의 형제요 구원자로 주셨나이다.
- 좋으신 아버지,
저희가 희년을 지내게 해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은총의 때인 이 희년에
저희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소서.
아버지께서는 넘치는 사랑으로
길을 잃고 헤매는 자녀들을 기다리시며
그들을 용서하시고 따뜻하게 맞아들이시어
좋은 옷을 입히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나이다.
- ◎ 하느님 아버지,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생명의 아버지,
모든 존재의 영원한 근원,
지고의 선이시며 영원한 빛이신
성부께서는 성자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영예와 영광, 감사와 찬미를 받으소서.
- ◎ 아멘.

